



추억 따라 개학 115주년의 모교 찾다... 흠커밍데이 대성황



지난 10월 17일 6천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관악캠퍼스 버들골에서 제31회 흠커밍데이 겸 가족 친목대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3~5면>

관악출추

모교는 지난 10월 15일 국립종합대학교 개교 64주년 기념식을 가지고 세계 초일류대학으로의 발전을 다짐했다. 모교는 법관양성소, 교원양성소, 의학전문학교 등이 계속 발전해 왔었는데, 1946년에 이들을 통합해 종합대학교로 개교한 것이다. 그러나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서울대학교의 전신학교는 1895년부터 개학하기 시작했다. 이제 모교는 동창들의 염원이었던 개학원년을 되찾아 1백15주년의 역사를 되찾게 됐다. 한국 국립대학의 기원은 대학이라든가 성균관에 있었다고 하겠으나 모교는 근대교육의 시발이었던 1895년을 개학원년으로 정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게 됐다. 모교가 그동안 세계의 50대 대학에 머물렀던 것은 공식 개교일이 늦어져 64년의 일천한 역사밖에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교는 세계유수대학 평가기관으로부터 1백위권 내의 대학에서 최근에는 40

하면 모교는 세계의 초일류대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평준화정책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국립대학 중의 하나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모교의 영향력은 점차 저하되는 느낌이 있다.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하겠다.

모교 당국과 동창회원들은 세계 초일류대학으로의 발전을 위해 이 법인화법안의 조속통과를 촉구해야 하겠다. 국립대학법인이 되는 경우에도 국가적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부는 적어도 모교만은 세계 초일류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모교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도 절실하다.

모교는 신임 吳然天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33만 동창회원과 5천명의 교직원, 2만명의 재학생의 뜻을 한데 모아 세계의 초일류대학으로의 도약을 기해야 하겠다. 대학평준화정책에서 탈피해 모교만이라도 세계 초일류대학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당국도 선도대학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金哲洙논설위원)

세계의 초일류대학으로

위 내외의 대학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이 평가는 과학잡지 인덱스인 SCI 논문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과소평가된 점이 많았다. 모교 졸업생이 고위공직자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회의원과 법관의 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CEO를 다수 배출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

규제를 벗어나 서울대학교의 수월성을 유지해 나가고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모교의 당면과제이다. 모교의 재정 독립과 인사독립, 학문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대학법인화가 선결조건이다. 정부는 서울대학교법인화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건만 국회가 옳게 심의하지 않아

느티나무광장

필자가 모교인 서울대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자부심은 관악1회 졸업생이란 것이다. 1972년 입학해서 교양과정 부를 저 멀리 공릉동에서 다니다 본과인 사범대를 용두동에서 2년을 다닌 뒤에 관악캠퍼스가 처음 문을 연 1975년에 이사를 와서 1976년 2월 26일 첫 졸업식을 운동장에서 했으니 관악1회 졸업생이라고 자랑해도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모교를 자주 찾을 기회가 없었지만 지난 봄 아카시아 꽃이 만발했을 때에 교수회관 옆 솔밭식당에서 우리 영어교육과정창회에 참석하느라 교정을 돌아보니 보통 달라진 것이 아니다.

사람이 몇 년 동안 외지에 나가 있다가 자기가 다니던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찾아보면 가장 놀라는 것이 교사와 교실이 너무 작고, 그렇게 넓어보이던 교정이 줄어들어 마치 난장이 마을에 온 것 같아지는 것이라는데, 근 35년 만에 다시 찾은 교정은 곳곳에 나무들이 자라고 우거져서, 예전 삭막하게 보이던 강의실 앞 참문에 나뭇가지들이 걸려 운치를 더해주는 것이, 이제야말로 첫 이사 때의

그 어색함을 벗고 완전히 역사가 있는 아카데미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자란 것은 나무의 키만이 아니었다. 필자가 2001년 영국 런던의 특파원으로 있을 때에 더 타임스 신문에서 본 모교의 대학순위는 세계 1백50위 언저리였지만 2005년 처음으로 1백위권 안으로 들어온 뒤에 2009년 47위까지 올라갔다. 2010년 올해는 평가기준이 논문의 인용수를 새롭게 추가하는 바람에 순위가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는 50위권 안으로 평가받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

이제는 노벨상을 기대하며

李 東 植
KBS 정책기획본부장
본보 논설위원



이 없다. 물론 외국에서 매년 대학 순위가 보편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모교가 국제적인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모교의 키가 많이 자랐다는 뜻이라고 하겠다.

가을이 돼 모든 나무의 잎이 떨어지면 비로소 나무의 실체가 드러난다. 작은 나무들의 잎에 가려 진정한 크기를 몰랐다가 작은 나무들 사이에서 멀리 우뚝 서 있는 큰 느티나무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 모교의 키가 학교 졸업 35년 후에 것처럼 커진 것을 확인하는 것은 보람있는 일이다. 등성등성하던 강의실과 연구실 건물이 관악산 골짜기를 꼭 메웠고, 밤에도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는 모습에서 다시 우리 사회의 큰 느티나무가 된 것이라.

느티나무는 오랜 연륜의 상징이다. 느티나무는 많은 이들에게 휴식과 성찰을 준다. 반세기 이상 머물렀던 옛 교정을 떠나 관악산에 등지를 튼 지 35년, 관악캠퍼스는 아주 큰 느티나무다.

어느덧 2010년 노벨상 수상자들이 다 발표된 이제 서울대학교라는 느티나무에서 모교 출신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쾌거로 학문의 열매가 새롭게 맺히기를 기대해본다. 사실은 상보다는 그만큼 국제사회에 대한 큰 공헌을 기대하는 것이지만 말이다.

관악시단

보낸 편지함

崔 泳 美(서양사학80-85)
시인

내 수첩에서 지워진 이름들, 지워지지 않았으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
살아 있지만 죽은 이들보다 멀어진,
싸늘해지기 조금 전의 미지근한 애정.
두 번 세 번 고친 형용사들, 정중함이 지나치게 모자라
전문적인 양념을 뿌린 의례적인 인사들.
우정이 끝났는데도 찍지 못한 마칩표.

상대를 잘못 고른 문장들.
웃음거리가 되었을 지나친 솔직함.
그녀의 전화기를 뜨겁게 달구고
친구의 친구에게까지 배달되었을 스캔들.

항의하는 편지들, 안녕하십니까로 시작되는
재판 냄새가 나는 문서,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 밤에 쓰고 아침에 검열한
기다리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잔뜩 계획만 세우고 떠나지 못한 여행들,
어머니 앞으로 보낸 편지는 없다!
한 번뿐이었던 완벽한 하루는 저장되지 않았고

뚜껑이 열리면 견갑을 수 없어
두 번 열고 싶지 않은 판도라의 상자.

동문칼럼

국경이 느슨해진 글로벌 시대를 살면서 이제 국제경쟁력과 국가브랜드는 문화 차원을 넘는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는 세상이 됐다. 한국도 이른바 한류를 통해 문화의 경쟁력이 상당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문화 장르의 중심에 있는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하는 까닭에 세계 문화시장에서 숙명적인 핸디캡을 안고 있다. 한국어는 운명적으로 소수자 언어이기 때문이다. 소수자 언어를 극복하고 메이저 언어에 끼어서 함께 뛰어야 한다는 당위는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절체절명의 명제가 되고 그 방법으로서의 번역은 중대한 사명으로서 인식된다. 다른 일반도서와 달리 문학작품이 과연 번역될 수 있겠느냐 하는 고전적인 딜레마도 이제는 운명적인 것처럼 간주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번역의 딜레마란 원전의 의미를 어떻게 그대로 지키면서 옮길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2001년 발족 이후 지금(2010년 9월 현재)까지 29개국 언어로 된 5백62종의 문학작품을 번역 지원했고 이중 4백37종이 출간됐다. 그 이전 번역금고(1996년 5월 6일 발족) 시절과 문예진흥원 시절까지 합산하면 8백종을 상회한다. 한국문학이 한국어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감안할 때, 이러한 수치는 괄목할만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과는 몇 가지 요소를 전제로 성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金 柱 演
(독문60-64)
문학평론가
한국문학번역원장

그 첫째는 이른바 콘텐츠를 구성하는 한국문학 자체의 질적, 양적인 발전이다. 다음으로는 역시 번역가들의 놀라운 성장을 거론할 수 있다. 영어를 비롯해 오늘 접촉, 번역 가능한 국내외의 번역가들은 그 집계 불가능할 정도로 다수(물론 이들 중 대부분은 현지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경우다)인데, 한국어로 된 작품을 외국어로 옮기는 번역가들(최소 한 권 이상의 실적이 있는 분들)은 약 2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은 이른바 기성 번역가들로서, 차세대 젊은 번역가들을 포함할 경우의 숫자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한국문학번역원에는 번역아카데미가 개설돼 있

문학번역과 국가브랜드

었기 때문이다. 지키면서 옮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하다. 언어는 곧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사고는 같아도, 방식이 다른, 다른 언어를 통해 사고 방식 자체를 똑같이 복원한다는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며, 또 무의미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번역의 주체이며, 주체적 문학관이다.

이제 번역은 원문 중심, 생산자 중심에서 벗어나 당해국 언어, 전통, 관습에 능숙한 시각에서 그곳 소비자 중심으로 가슴을 열어야 한다. 그들이 읽고 그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해석의 키를 쥐야 한다. 현지 독서소비층들을 위한 새로운 번역가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한국문학번역원은

어서 차세대 번역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 개설 이후 연인원 2백명 가까운 학생들이 이 과정을 수료했거나 이수 중에 있다.

정규과정, 특별과정, 단기과정, 심화과정으로 운용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어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한국어가, 외국어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외국어가 강의되면서 번역에 필요한 조화로운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한국문학에 대한 열정, 그것을 세계에 소개하고 싶다는 열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 열망의 끝에 문화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얼굴이 보인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朴 薦 壽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洛,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邊榮顯, 玄智愛 광고부장 金千鶴



본회 林光洙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 모교가 세계 명문대학에 손색이 없는 1백15년이라는 전통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31회 흙커밍데이 겸 가족 친목대회>

서울대인의 자부심 느끼게 해준 동문 화합의 장

林光洙회장 “모교가 세계 중심으로 비상하도록 격려하자”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0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제 31회 서울대 동문 흙커밍데이 겸 가족 친목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신종 플루 확산의 영향으로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동문과 가족 6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온 손녀에서부터 다정한 노부부까지 오랜만에 모교 관악캠퍼스에 모인 이들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전 9시부터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접수를 마친 동문 가족들은 모교 성악과 朴美惠(성악 79-83)교수의 노래가 담긴 ‘그리움’ CD와 柳承斌(공업교육63-71)동문이 제공한 ‘드래곤힐스파’ 이용권을 받았다. 이어 안내원의 인솔에 따라 등산탐과 교내 탐방탐으로 나눠 자유롭게 관악산 자락과 캠퍼스를 둘러봤다.

교내탐방은 미술관·박물관·규장각을 돌아보는 순으로 이뤄졌다.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미술관·박물관·규장각을 개장해 많은 동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구름한 점 없는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탐방에 나선 참석자들은 정문 옆에 위치한 미술관에서 ‘한국전쟁의 초상’과 ‘지벨레 베르게만 사진전’을 감상한 뒤 박물관에서 특별전 등을 관람했다. 이어 규장각에서 국보급 유물들을 구경하고 자하연과 중앙도서관 등을 둘러봤다.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된 ‘한국전쟁의 초상’ 전시회에는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미술작품 1백여 점이 소개돼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어린 세대에게 좋은 경험이 됐다.

‘일본 고대문화 특별전’이 열린 박물관에서는 일본 와세다대학 아

이즈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고고학 유물들이 소개돼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다. 1만2천년 전부터 2천5백년 전까지 수렵·어로·채집과 같은 채집경제를 기반으로 정주생활을

가능했으며, 동문들 또한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큰 혼잡 없이 교내탐방이 이뤄졌다. 자유롭게 전시관을 둘러본 동문들은 행사장인 버들골로



한 조문(繼文)시대의 다양한 장신구와 생활도구들은 독특하면서도 색다른 매력을 드러냈다. 전시를 둘러본 한 동문은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일본의 고대 문화를 직접 접해볼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7천여 국보와 25만점의 고도서·지도 등이 보관된 규장각에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과 의례 등 조선의 명품 유물들을 선보였다.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귀중한 자료를 직접 볼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라 그런지 규장각은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단위 참석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건물마다 화장실과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불편 없이 관람이

이동하며 여유로운 휴일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교내탐방탐과 달리 대운동장에서 농생대 방향의 순환도로를 따라 관악산에 오른 등산탐은 아카시아 동산→제4야영장 전 삼거리→모교 공대 순환도로 등산로 입구→신공학관→버들골로 이어지는 코스로 관악산을 둘러봤다.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길인데다 비교적 평탄해 남녀노소 모두 어렵지 않게 등산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산자락 곳곳에 울긋불긋 물든 단풍까지 볼 수 있어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끼게 했다.

본회 朴蕙壽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기념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해는 신종 플루의 확산으로 대회를 개

최하지 못했지만 오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게 돼 반갑다”고 인사했다.

이어 “모교를 점단의 지식을 향도하는 학문적 가치창조의 세계적 리더로 발전시키고, 민족에게 보다 개방된 서울대를 만들겠다는 吳然天총장님의 뜻이 실현돼 모교가 세계의 중심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격려하자”고 말했다.

2008년부터 본회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7

◀홀수, 짝수 학번으로 나눠 줄다리기로 오랜만에 힘자랑을 펼쳤다.

▶어린 자녀들이 댄스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즐거움을 선사했다.

↓가수 李 安동문이 흥겨운 노래를 불러 동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일 모교 평의원회 본회의에서 ‘학문 분야에 따라 대학교육의 연원이 1895년에 시작됐으므로 1895년을 개학 원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돼 14일 吳然天총장님이 이를 선포했다”며 “이로써 우리 모교는 세계 명문대학에 손색이 없는 1백15년이라는 전통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해 동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축사에서 “동창회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문적 뿌리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검증하면서 학문적 연원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모교를 위한 동창회의 노력에

부응해 모교도 새로운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책임감 강하고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리더를 양성하고 세계 지식의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이 이번 대회를 위해 경품을 제공한 동문들을 소개하며 협찬금을 출연해준 7백여 명의 동문과 단과대학 및 지부동창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협찬 동문 명단 4~5면 참조)

또 매몰된 지 6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철재의 광부들이 살아나와서 처음 외친 말인 ‘비바(viva : 스페인어로 ‘만세’라는 뜻)’를 설명하면서 “선진하는 대한민국을 기원하고, 함께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吳然天총장님의 후원을 다짐하고, 개학 1백15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건배를 하자”며 비바를 세 차례 선창했다.

3부 친목과 단합의 시간은 사회를 맡은 蔡賢九(체육교육78-82) 동문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시종일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를 격려하기 위해 미국 LA에서 온 諸永惠(의류71-75)前남가주지부동창회장은 “LA에서도 해마다 8월이면 멋진 합창 발표회와 음악회를 연다”며 “동창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기회가 되면 LA에 오셔서 동문간 화합의 정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별 공연으로 모교 음대 비바 남성 중창단이 ‘Stein Song(우정의 노래)’과 ‘경복궁 타령’, ‘여자보다 귀한 것은 없네’ 등을 부르고, 모교 댄스 동아리 피에스타가 경쾌한 재즈댄스와 스윙댄스를 선보여 보는 이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모교 출신 가수 李 安(본명 이동희 국악99-04)동문은 자신의 히트곡인 ‘물고기자리’와 ‘아리요’를 부른 뒤 민요 ‘왜지나칭칭나네’를 창으로 바꿔 불러 동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金斗煥(전문기상70졸 아주대 교수)동문 등 흥에 겨운 몇몇 동문은 무대 앞 잔디로 나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연출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공 굴리기, 줄다리기, 어린이 댄스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돼 휴일을 맞아 모처럼 모교를 찾은 동문 가족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경품 추첨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이 협찬한 소형 승용차는 朴春景(경제81-85)동문이 당첨됐으며, 대림산업 李竣鎔경영회장이 협찬한 스쿠터는 文駿熙(기계설계88-92)동문, SBS 尹世榮회장이 협찬한 LCD TV는 張在興(기악57-61)동문이 차지했다. (智)

홈커밍데이 협찬 감사합니다

동문 가족 친목대회에 협찬금·품을 출연해 주신 각계 동문을 소개합니다.

— 지면 관계로 동창회 임원 분들만 사진 게재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신대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강 신 호  의대46·본회 고문 동아계약 회장 음료수 4천개	김 재 순  상대45·본회 명예회장 샘터사 고문 식기세척기 1대	오 연 천  문리대70·본회 명예회장 모교 총장 고급우산 3백개
임 광 수  공대48·본회 회장 임광토건 회장 승용차 1대	손 일 근  법대51·본회 상임부회장 한국일보 고문 디지털 카메라 1대	이 예 식  약대46·관악회 이사 前극동계약 명예회장 일금 30만원	조 필 제  공대46·관악회 이사 세양주택 회장 일금 30만원	김 정 식  공대48·본회 부회장 대덕전자 회장 일금 50만원	신 명 규  사대48·관악회 이사 前문영여중 교사 일금 30만원	유 종 해  법대50·본회 부회장 연세대 명예교수 일금 30만원
이 길 여  의대51·본회 부회장 경원대 총장 드럼세탁기 1대	이 해 원  법대51·본회 부회장 한국우드워드 회장 일금 50만원	박 희 백  의대51·본회 부회장 박희백정형외과의원장 진공청소기 2대	최 두 형  법대51·본회 부회장 성원개발 회장 일금 50만원	조 기 호  사대54·관악회 이사 기호물산 회장 일금 30만원	이 금 기  약대55·본회 부회장 일동계약 회장 영양제 30개·유제품 4천병	윤 세 영  법대56·본회 부회장 SBS 회장 42인치 LCD TV 1대
이 준 용  상대56·본회 부회장 대림산업 명예회장 스쿠터 1대	이 상 주  사대56·본회 부회장 前성신여대 총장 일금 50만원	김 찬 숙  치대56·본회 부회장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일금 50만원	정 윤 환  농대56·본회 부회장 일성화학 사장 일금 50만원	서 계 숙  음대56·음대동창회장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 일금 30만원	손 경 식  법대57·본회 부회장 CJ그룹 회장 CJ외식상품권 10매	홍 성 대  문리대57·본회 부회장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넷북 1대
남 정 현  공대57·본회 부회장 대우테크 고문 일금 50만원	우 인 성  공대58·본회 부회장 인터비즈니스시스템 회장 일금 50만원	김 봉 구  미대58·미대동창회장 이화여대 명예교수 일금 30만원	안 성 철  법대58·관악회 이사 유니온테크 회장 일금 30만원	손 길 승  상대59·본회 부회장 SK텔레콤 명예회장 워커홀 외식상품권 2인5매	조 병 우  공대59·본회 부회장 유풍 회장 일금 50만원	강 인 구  수의대59·본회 부회장 대영EEC 회장 일금 50만원
이 용 훈  법대59 대법원장 일금 30만원	유 상 부  공대60·본회 부회장 포스코 고문 일금 50만원	변 주 선  사대60·본회 부회장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건강 검진권 5매	정 지 석  약대60·약대동창회장 한미약품 부회장 일금 30만원	박 영 준  상대60·본회 감사 에일건설그룹 회장 일금 30만원	정 계 영  상대61·관악회 이사 원일건설판매 회장 일금 30만원	우 경 자  가정대61·생활대동창회장 인하대 명예교수 일금 30만원
이 철 우  농대61 롯데백화점 사장 롯데백화점상품권 5매	박 호 전  상대62·본회 부회장 삼척 회장 일금 50만원	김 경 한  법대62·법대동창회장 KH법률연구소 변호사 일금 30만원	김 주 필  문리대63·자연대동창회장 동국대 석좌교수 일금 30만원	유 승 빈  공대63 양지진흥개발 회장 드래곤힐스파 이용권 3천매	신 현 웅  문리대64·본회 부회장 재단법인 웅진 이사장 일금 30만원	김 일 섭  상대64·관악회 감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 일금 30만원
홍 용 찬  상대64·상대동창회장 우성마리타임 회장 일금 30만원	김 동 녕  상대64 한세에스24홀딩스 회장 영화에매권 2인 50매	홍 예 표  치대65·치대동창회장 홍예표치과의원장 일금 30만원	김 중 섭  문리대66·본회 부회장 삼익약기·SPECO 회장 디지털피아노 1대	이 문 한  수의대66·대학원동창회장 모교 수의학과 교수 일금 30만원	성 기 학  상대66 영원무역 회장 등산화 10켤레	현 재 현  법대67·본회 부회장 동양그룹 회장 스팀오븐렌지 1대
김 기 병  행대원67총·행대원동창회장 롯데관광개발 회장 중국 여행권 2매	이 진 방  상대67·경대원동창회장 대한해운 회장 일금 30만원	홍 석 현  공대68·본회 부회장 중앙일보 회장 일금 50만원	문 창 극  문리대68·관악언론인회장 중앙일보 대기자 일금 30만원	유 동 림  공대68·관악무역인회장 두루무역 대표 일금 30만원	이 현 봉  경영대68 백센타이어 부회장 자동차 타이어 교환권 1매	이 중 기  상대69·본회 부회장 상영무역 회장 일금 50만원
김 인 규  문리대69·본회 부회장 KBS 사장 일금 30만원	장 중 환  의대69·본회 부회장 장중환산부인과의원장 일금 50만원	주 성 민  법대69·본회 감사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일금 30만원	김 경 희  상대70 서울랜드 사장 서울랜드 빅5이용권 30매	최 병 민  문리대71 대한펄프 회장 물티슈 3천개	정 충 시  공대72·본회 부회장 세진에이엠 회장 일금 50만원	신 창 재  의대72·본회 부회장 교보생명보험 회장 일금 50만원

김이환  신대원72·연대원동창회장 중앙대 객원교수 일금 30만원	이만의  환대원73·환대원동창회장 환경부 장관 일금 30만원	최주현  경영대75 삼성에버랜드 사장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30매	홍석규  사회대75 보광그룹 회장 콘도이용권 4매	김형주  공대78·관악회 이사 모교 발전기금 상임이사 일금 30만원	김동수  행대원80·ASP동창회장 한국수출입은행장 일금 30만원	김진범  공대83 링크웨어 사장 네비게이션 3대
조재구  농대83 대천 합동양조장 대표 막걸리 5백병	정팔도  AIP1·분회 부회장 코리아랜드컴파니 회장 김치냉장고 1대	김병순  AMP4·관악회 이사 한국구아노 이사 일금 30만원	정도연  AMP28 일양약품 회장 화장품 5세트	장경작  AMP33·관악회 이사 현대아산 사장 일금 30만원	이장한  AMP37 종근당 회장 영양제 10세트	김광석  AMP38·AMP동창회장 참존 회장 화장품 5세트
강보영  HPM1·前HPM동창회장 안동병원 이사장 건강 검진권 4매	이상호  HPM3·HPM동창회장 우리들병원그룹 이사장 일금 30만원	신일산  AMPFRI14·AMPFRI동창회장 나노카보나 대표 LUX 슛침대 1대	서종욱  ACPMP3·ACPMP동창회장 대우건설 사장 일금 30만원	김권진  SPARC12·SPARC동창회장 성신화학 대표 일금 30만원	윤동환  AFP2·AFP동창회장 한국콜마 회장 화장품 3세트	김명자  GLP13 보우실업 대표 쥬얼리 1세트

(일금 10만원)

◆인문대 △이강근81 △이광웅85
△최태영76
◆사회대 △김 숙70 △김용태91
△김진국78 △김태식78 △박 찬75
△유일호75 △정 일95 △정두연76
△최광해74 △한지원02 △홍석준73
◆자연대 △김기철79 △송세안75
◆간호대 △김복순55 △이준자54
◆경영대 △박현수70 △박훈기81
△반용음77 △신윤경06 △양승석71
△최병철74
◆공대 △강학순64 △강현석64
△경세호53 △곽순태63 △김 원61
△김광수76 △김국호65 △김노수45
△김대욱76 △김덕수51 △김병주59
△김석주48 △김선동59 △김선홍55
△김수광59 △김신원64 △김영훈78
△김유경68 △김윤규62 △김익훈46
△김재동70 △김정근57 △김정일58
△김제영71 △김종각59 △김종훈69
△김지호55 △김진원68 △민계식61
△박세화84 △박승빈65 △박우규70
△박우병52 △박원희58 △박태훈78
△변성우63 △변응현66 △변재용75
△변형직47 △서립규57 △서우원61
△선우정호61 △성낙정48 △송명호59
△송용호70 △송진해63 △송흥빈58
△신근식66 △신동수52 △신선호66
△신재홍77 △심목진61 △안경수70
△안덕주61 △안종태02 △안철호48
△양승택57 △양흥준65 △여성준67
△오병욱57 △오성환59 △오원석71
△원정수53 △원호영59 △유기형67
△유익선59 △윤영석60 △윤재강48
△윤준호70 △윤홍갑58 △이계수63
△이계식75 △이광성66 △이기창54
△이달우48 △이봉주67 △이상운70
△이승준56 △이영필66 △이영호56
△이용우77 △이원도59 △이장희78
△이재일05 △이정목50 △이종대57
△이종호59 △이지은04 △이진형74
△이장건49 △이태수77 △이한정81
△이환범56 △임만직56 △임병주52
△장삼진51 △전병대68 △전형식66
△정교성65 △정연세53 △정우식80
△정준양75 △정태화71 △정해중66
△제해현65 △조병철59 △조복제58

△조정남61 △조창걸59 △지 순54
△최규윤68 △최정길52 △최종명56
△최진택63 △추지석59 △추현출55
△하준환51 △한대림60 △허 환63
△허진욱81 △홍해남73 △황석영63
△황운현73 △황해근54
◆농대 △강종호60 △곽영철59
△권명구68 △김근영65 △김삼국51
△김정목59 △김종훈67 △김택현65
△류관희63 △류혁근65 △박삼민92
△박승제73 △박정부60 △성배영62
△신명철63 △신해상66 △심재익56
△양상홍62 △우건석55 △유동준56
△윤희진63 △이건호67 △이경국78
△이경원61 △이덕록72 △이도경56
△이돈구65 △이영대75 △이원규58
△이정호71 △임형백89 △진하영89
△차성윤57 △한정길63 △홍성구65
◆문리대 △강성위52 △강신형49
△구평희47 △권기욱60 △김기주54
△김두희52 △김병익57 △김병호66
△김상하45 △김석만57 △김승국56
△김영환66 △김일환64 △김형오67
△문명호59 △문영모60 △박남훈68
△박명진65 △박무익62 △박병언61
△박영수71 △박영혜61 △박종오55
△서광석51 △서옥식69 △서창국68
△송규정63 △신우식53 △안국정63
△안택수62 △엄영섭66 △염정민63
△이 결69 △이 랑60 △이경재59
△이상현64 △이석운50 △이성해61
△이수홍49 △이원홍52 △이정자50
△이종대69 △이종명65 △이현조52
△임득호64 △임형두57 △장순근65
△장정환56 △장화자51 △장병순58
△정병철67 △정용재46 △조기웅66
△조완규48 △최시중57 △최흥룡57
△최희조63 △하영기44 △한광욱60
△허종덕63 △황 찬69 △황보순57
◆미대 △김정혜61 △박민여62
△오은주83 △이강소61 △이병석58
△이종상59 △이종철58
◆법대 △강영규48 △고광석63
△구지춘54 △권영세77 △권혁구55
△김덕주52 △김문화55 △김상희69
△김선혜73 △김성길60 △김신형61
△김영무60 △김영일60 △김일권64
△김재길56 △김진익55 △김창국58
△김현산54 △김현순54 △김형선57

△김환구74 △김환수52 △나대진67
△목요상55 △박기동75 △박성철75
△박철근55 △배서필56 △선우영74
△송두환67 △심재갑52 △안산돈59
△여동영60 △오복동57 △오태환53
△원세훈70 △윤일영52 △윤준원67
△이광진77 △이대경77 △이대순53
△이상건77 △이상근82 △이재전52
△이재철70 △이정운61 △이주영70
△이장원55 △이해규60 △장세두59
△장윤기69 △장창호63 △전수안71
△정성진58 △정은구58 △정주석61
△정희준57 △조남돈72 △조동원54
△진 영71 △진성철82 △채재익57
△최두영93 △최병조71 △최상욱79
△최승화59 △최연희64 △하일부57
△한일성66 △현천욱72 △홍석조71
△황진구88 △황희철77
◆사대 △강신주51 △구영주72
△김동길57 △김동찬51 △김정홍57
△김종성57 △김종찬87 △김화영57
△민홍기59 △박명학61 △박찬구56
△박한식51 △변재익65 △서정선60
△성백신47 △여상인79 △오건주76
△오윤용60 △이 종65 △이동식72
△이안기71 △이영수61 △이영주52
△이완기45 △이익환64 △이춘구54
△이태근49 △이희숙61 △장재혁80
△전병일66 △정광현71 △정근화63
△정일환46 △정정자56 △조길준56
△조용복55 △조진현57 △최방지59
△최병주56 △황선용57
◆상대 △강영복51 △강영중66
△권오근49 △권오학57 △권이성52
△권혁성53 △김승환67 △김영수58
△김완기46 △김의식46 △김종창67
△김창수66 △남상덕69 △문대원71
△문운용60 △박 철64 △박길상68
△박영대56 △박영일59 △배종렬61
△서태식58 △석학진58 △성하현59
△송병탁59 △심재선59 △안재동60
△안태호45 △원우식52 △유석기57
△유영일53 △이경태66 △이규성58
△이민준57 △이상학59 △이성태64
△이승우53 △이용우61 △이용진68
△이원규56 △이정상59 △이한희54
△이항철54 △임채주55 △장만화56
△전복규56 △정광섭66 △조갑주58
△조창제57 △주덕화46 △최광현62

△최동건70 △최명재48 △최창걸60
△탁갑근71 △허남각56 △허병하58
△홍현후46 △홍영기57 △황동규63
△황창학55
◆생활대 △이재민02
◆수의대 △김건호70 △백오섭58
△송기준59 △안 훈53
◆약대 △강해석71 △고대승54
△공영석57 △김경일53 △김선중61
△김성근55 △김장호65 △김종서56
△김한길59 △문승만56 △반태환65
△우용렬57 △이광수63 △이세복64
△이숙연48 △이용선50 △이해돈68
△조윤숙83 △최윤환56 △홍순언60
◆음대 △강신자56 △김선희81
△백문기46 △윤병택58 △이영자55
△장재흥57
◆의대 △강형운45 △김민석91
△김승협73 △김응중78 △김주현65
△박상용57 △박인원76 △박중수70
△박찬웅54 △변상현51 △서교일78
△서병태54 △선우태환71 △신면우48
△오승준85 △유형래54 △윤 탁92
△윤광선68 △윤병우74 △윤해근70
△이광호67 △이상용64 △이수일69
△이순형56 △이재서82 △장돈식56
△정규병65 △정두석84 △정명관91
△정문성78 △정훈용84 △조강희59
△지영일60 △최기용74 △한동수59
△한중수71 △허준평70
◆치대 △강성현69 △강효식57
△김경중72 △김명진70 △김법환81
△김성수67 △김용준53 △김정수54
△김종철71 △남동석59 △문일환65
△민병덕64 △박기성55 △박준영60
△서현중72 △성재현66 △양동규53
△양문섭78 △이상철57 △이상필70
△이진근63 △이형순73 △임순모70
△장영일64 △장종선57 △조성직54
△지현택43 △최욱환57 △허 택71
◆대학원 △김도현74 △최 일70
◆경대원 △조현국73
◆보대원 △박대근63 △박순영63
△박창진70 △손경애74 △이규환63
△임완호83
◆사대원 △김적승69 △조무제65
◆형대원 △연기호67 △윤일근69
△이두현74 △이형기70 △이효계68
△장주호69 △함용빈73

◆AMP △곽연구34 △김상봉46
△김영천30 △김인규6 △김인상57
△김정태59 △김종엽28 △김해삼51
△문창복52 △박정부61 △서강유3
△송춘달46 △신성우32 △심삼조55
△안병근50 △엄상호18 △윤영호11
△이세락45 △이영열46 △이원구48
△이종아37 △이현구52 △장기봉59
△전현찬44 △정광훈47 △조달호7
△조성환48 △조인상2 △최영보55
△최효석67 △하재준11
◆AIP △고상언11 △권오석3
△김원규15 △김용석25 △김재기16
△심종덕15 △이대만24 △이선규38
△이용우22 △이정수2 △이천익41
△장영근29 △전종선34 △조원호14
△조인형13 △최창식11 △현정원19
◆ACAD △곽영철5 △권정신2
△김경래18 △김기영49 △김성은30
△김찬희1 △김충한18 △남상준45
△노희찬33 △박신언16 △박영순43
△서정권2 △안근일68 △조주태14
△지난식51 △최광주55
◆SGS △강재식6 △윤주선4
△정운경11 △형난옥9
◆APC △윤종아22
◆HPM △김재영18 △박만식5
△부영욱13 △윤덕보1 △이용팔13
△임성수14
◆AMPP △고영욱4 △류귀식7
△서학령7 △신희백5 △오덕영8
△장철순7
◆AIC △김정구3 △양 우22
△홍윤기1
◆AMPFRI △문운봉15 △최삼현2
△최창혁4
◆ACPMP △김순갑2 △김주동3
△박상남3 △정운택5
◆FIP △임광빈1 △황귀봉1
◆GLP △김동만15 △김명자13
△신동열3 △신용식17 △이석성6
◆ALP △김경일3 △박창규2
△서일성6
◆SPARC △김삼종13 △황미리8
◆ASP △고금순10 △이병욱9
(이상 10월 20일까지 홈커밍데이
이 협찬금을 출연해주신 분, 이후
협찬 동문명단은 다음 호에 게재합
니다)

서원산업 朴鍾日회장 장학발딩 건립기금 1억원 쾌척

“기부해보지 않은 사람은 제
기분을 모를 겁니다”

지난 10월 19일 본회 장학발딩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한 서
원산업 朴鍾日(조선항공공학47-
51)회장(사진)은 “어렵게 공부
한 기억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 어

려운 후배들을 도와야겠다는 생
각을 늘 갖고 있었다”며 “오랫동
안 갖고 있던 소원을 이뤄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최근 朴동문은 소유하고 있던
염전을 매각하면서 그 일부를 본
회에 출연했다. 본회는 ‘朴鍾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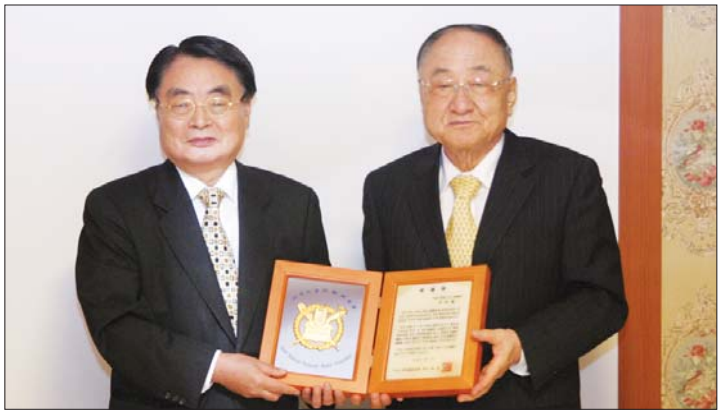


특지장학회’를 운용해 朴동문의
뜻에 맞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
학발딩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새
겨 그 뜻을 영구히 보존할 계획
이다.

청소년기에 일제 식민통치와
6·25전쟁 등을 겪으며 힘들게 공
부한 탓인지 朴동문은 “장학금은
전공과 상관없이 가난한 환경에
서 어렵게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朴동문은 1945년 경성공업전
문학교 기계과에 입학했으나
1947년 서울대 통합 후 조선항공
과로 전과해 1951년 부산에서 졸
업했다. 졸업 후에는 대한조선공
사를 거쳐 대림산업 해외본부장,

풍림산업 해외담당 부사장을 역
임했다. 동문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조선공학과동창회장을 지냈
다. 가족으로 부인과 사이에 5남
매를 뒀으며, 만사위가 중소기업
청장을 지낸 A.T. Kearney
Korea 洪錫禹(무역74-80)부회
장이고 둘째 사위가 헌법재판소
睦榮堉(법학74-78)재판관이다.
독립운동가인 선친(朴秉壽)의
업적으로 지난 198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훈했다.



金信福 前부총장·林光洙회장

모교 전임 보직교수 초청 오찬 金信福·金夏奭 前부총장에 감사패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0
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인근 음
식점에서 李長茂 前총장을 비롯해

전임 보직교수들과 오찬 모임을
가졌다.

林光洙회장은 “李長茂 前총장을

중심으로 모든 보직교수들께서 최
선을 다한 결과 모교가 장족의 발
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李長茂 前총장은 “林光洙회장님
을 비롯해 동창회 임원들께서 모교
가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뤄가는데
큰 성원을 보내주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회장은 李 前총장을 보
좌하며 모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金信福 前부총장과 金夏奭前임부
총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회
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勤煥·
李相周·李炯均·辛鉉雄부회장, 모
교 李長茂 前총장, 金信福 前부총
장, 金明煥 前교무처장, 徐鎭浩
前연구처장, 朱鍾南 前기획처장,
李根寬 前기획부처장, 具 英 前학
생부처장 등이 참석했다.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羅 亨 敏 作



‘Nowhere to run’, 한지에 토분 채색, 115×150cm, 2009

<작가약력>

- ▲91~99년 모교 동양화와 졸업
- ▲04~09년 개인전 5회
- ▲09년 제6회 한·중 수목화교류전
- ▲09년 동양화 새천년전
- ▲09년 ArtRoad 77전 ‘With art, With

artist!’

- ▲09년 키프로젝트전 ‘승流’
- ▲09년 피스드림아트페스티벌 한국·스페인
현대미술제 ‘본질에 대하여’전
- ▲09년 아트인생 프로젝트 2탄
‘의정부 부대찌개 49인분’전
- ▲10년 ‘Image in Dialog’전
- ▲10년 한의학과 미술의 만남 ‘몸을 탐하다’전
- ▲현재 경희대 미술학부 교수

기계동문회

李賢淳회장 선임

기계동문회(회장 金東晉)는 지
난 10월 13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
지니어하우스에서 제44차 정기총
회를 개최했다.

여느 해와 다르게 평일 저녁에
열린 이날 모임은 본회 林光洙회
장, 孔大植부회장을 비롯해 明泰
鉉 前관악회 이사, 李俸柱전임 회
장 등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계동문회 고문이기도 한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총동창회
는 장학발딩 건립과 모교 개교 원
년 조정 사업 등을 통해 모교가 세



신임 李賢淳회장(左)이 전임
金東晉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계적 명문대학으로 진입하는데 어
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교
발전과 동문들의 힘을 결집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장학금 수여식에서 기계

항공공학부 재학생 2명에게 각각
장학금 2백50만원을 지급했으며,
기계항공공학부 李俊植(기계공학
72-76)학부장에게 활동지원금 5
백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
해 현대·기아차그룹 李賢淳(기계
공학69-73)부회장을 회장으로 선
출했으며, 수석부회장은 우영유압
蔡頰浩(기계공학70-74)대표를
선임했다.

신임 李賢淳회장은 “동문회 기
금 확대와 후배들의 진로, 특히
취업문제로 공학도의 길을 버리고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가려는 후
배들을 설득하고 제도적으로도 보
완할 방법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
혔다.

華淳(수의학80-84)이사, 에스디
趙榮植(수의학80-84)대표, 이엘
티사이언스 崔亨圭(수의학81-85)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83학번 동기회가 동창회
장학기금으로 1천만원을 쾌척했으
며, 任貞守(수의학64-68)동문이
3백만원을 출연했다.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으로 선정된 朴동문도 1
천달러를 기부했다. 시상식 후 이
어진 총회에서 李角模회장을 재선
출해 앞으로 2년 동안 수의대동창
회를 위해 봉사하게 됐다.

수의대동창회

83학번 기금 출연·李角模회장 연임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角模)
는 지난 10월 9일 모교 관악캠퍼
스 스코필드홀에서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李角模회장, 모교
權五鏡학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 시상, 총회, 만찬, 특

강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를 빛낸 자랑스러운 수의대
인으로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朴鍾洙(수의학58-62)동문을 선
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또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모교 수의
과대학 李文漢(수의학66-73)교
수,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쉐

여했다.

또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동문들
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동창회는 매년 5월 ‘대선배의
날’과 10월 ‘농공의 날’ 행사로 진
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장학재단
을 통해 매년 1억원 이상의 장학
금을 지원하고 있다.

朴明潤·李幸子특지장학회 대학원생에 연구비 전달

한국청소년연구소 朴明潤(보대
원74-76·관악회 이사)이사장은
지난 10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보건대학원 회의실에서 2010학년
도 2학기 ‘朴明潤·李幸子특지장
학회’ 연구비 전달식을 열고 석사
과정 權謹龍군과 金잔디 양에게
각각 50만원을 전달했다. (南)



약대동창회

모교서 1백60여 동문 가을 만끽

약학대학동창회(회장 鄭之碩)는 지난 10월 10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앞 잔디밭에서 제28회 동창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李禮植·李金器·李世榮전임 회장, 모교 徐永鉅학장, 일본지부 고타케 데쓰로(小武徹郎 경성약전45졸)회장을 비롯해 제주도에서 올라온 金漢柱(약학57-61)동문 등 1백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鄭之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약대동창회관 건립기금 모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동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鄭회장은 徐永鉅학장에게 모교 활동기금을 전달했으며, 공식 행사 후 동문들은 관악산 산행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즐기며 친목을 도모했다. 특히 鄭회장이 특별 초청한 ‘한국 요텔 카메라렌’의 멋진 공연으로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경품 추첨에서 黃善灝(약학56-60)동문이 스탬다리미, 金貞淑(약학69졸)동문이 선삼을 받았으며 대상 상품인 노트북컴퓨터는 金素珍(제약82-86)동문에게 돌아갔다.

간호대동창회

모교에 3천만원 기부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洪京子)는 지난 10월 14일 졸업 30·40주년을 맞은 동문들을 모교로 초청해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관악캠퍼스 규장각·미술관 견학, 환영 오찬,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박물관 관람, 기념 학술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미국을 비롯해 국내외 각지에서 모인 50여 명의 동문들은 새롭게 바뀐 모교 교정과 박물관 등을 돌아보며 옛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모교 발전기금으로 3천만원을 기부했다. 모교 투어 후 간호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학술대회에는 서울아산병원 李英善(간호76-80)외래간호1팀장, 대구대 심리학과 琴明子

(간호76-80)교수, 美존스홉킨스보건대학 全姬順(간호76-80)교수, 李相明(간호76-80)美정신전문간호사 등이 발표자로 나와 ‘간호사 경력관리’, ‘상담심리문화’, ‘Asian American Cancer Project’, ‘미국 NP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했다.

상대동창회

26회 동기회 바둑 우승

상대대학동창회(회장 洪龍濤)는 지난 10월 2일 서울 흥익동 한국기원에서 제9회 동문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1백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26회 동기회가 2년 연속 단체전을 석권했으며, 개인전 A조 1위에 尹同鉉(국제경제82-89)동문, B조 1위에 鄭起溶(무역71-75)동문이 각각 올랐다.

의대동창회

의학도서 1백94권 전달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眩)는 지난 10월 5일 모교 연건캠퍼스 함춘회관에서 함춘미술전 개막식과 도서기증식을 개최했다. 제8회 함춘미술전에는 16명의 회원이 서예, 서양화, 사진작품 42점을 출품해 동문간 문화교류의 장을 펼쳤다. 개막식에 이어 동창회 학술연구재단은 도서기증식을 갖고 2천



韓圭變기획이사, 洪性台감사, 朴商弘재단부회장, 徐廷旭의학도서관장, 朴容眩회장, 任廷基학장, 朴相哲학술부회장

만원 상당의 의학도서 1백94권을 모교 의학도서관에 전달했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9월에 金周一(의학44-48)동문이 5백만

원, 丁長鎭(의학50-54)동문이 1천만원, 44회 동기회(회장 李雄熙)가 1천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출연했다고 밝혔다.



사대동창회

翰西 南宮櫨유적지 탐방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10월 6일 가을 문화탐방의 일환으로 강원도 홍천군 ‘翰西南宮櫨유적지’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에는 卞柱仙회장을 비롯해 李相周 前부총리, 모교 鄭淸喜 명예교수, 단국대 曹昌燮교육대학원장, 인쇄방송 서한샘 회장 등 7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해 ‘南宮櫨유적지’를 비롯해 하이트맥주 공장 등을 견학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卞柱仙회장은 “강원대 총장을 역임하신 李相周 前부총리께서 南宮櫨선생 유적지를 추천해 다녀오

게 됐다”며 “우리나라 교육의 선구자이신 南宮櫨선생의 발자취와 업적을 살펴보고 교육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속동창회

25회 ‘금속의 날’ 행사

금속동창회(회장 姜昌五)는 지난 10월 10일 모교 관악캠퍼스 버들골에서 제25회 ‘금속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廉熙澤(금속공학46-49)·朴鍾泰(금속공학48-52)동문을 비롯해 1백60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해 즐거운 게임과 음식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했다. 동창회 박상희 간사는 “지난 1

년 동안 지방지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姜昌五회장님 덕분에 이날 모임에는 호남·광주지부(지부장 秦榮述), 대구·경북지부(지부장 權五俊), 부산·경남지부(지부장 金學敏) 등지에서 많은 동문들이 올라와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林炳珠(금속공학52-56)·崔正吉(금속공학52-56)·朴燾奭(금속공학53-57)·金宗燦(금속공학54-58)·孟涉(금속공학59-65)·崔翔五(금속공학63-67)·鄭弘溶(금속공학64-68)동문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SGS동창회

수석부회장 3명 선임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동창회(회장 曹白一)는 지난 10월 20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이사회를 열고 태영건설 金鐘逸(5기)전무, 풀무원 南承祐(법학70-74·9기)대표, GDS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朴贊政(건축73-77·16기)대표를 수석부회장에 선출했다. 〈南〉

제13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러 이웃 동문에게도 널리 알려 많은 후보자의 추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 2011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217호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 702-2233 · 팩스 : 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2011년 3월 18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 光 洙·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회비를 납부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포켓용 DIARY·탁상용 달력을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켓용 DIARY’와 ‘탁상용 캘린더’를 준비했습니다. 동창회 DIARY와 캘린더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주신 동문께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1년 辛卯年의 설계와 구상을 동창회 DIARY와 캘린더로 준비하시고 보람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동창회를 사랑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 울 대 총 동 창 회

정외과·사회학과동창회

골프대회서 李相賢동문 우승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李圭煌)와 사회학과동창회(회장 張錫準)가 지난 10월 6일 충북 음성 진양밸리CC에서 제4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정외과 동문 13명과 사회학과 동문 14명이 참석

해 7개팀으로 나눠 승부를 가렸다. 경기 결과 사회학과동창회가 평균 85.4타를 기록해 88.8타를 친 정외과동창회에 압승했다.
개인전에서는 李相賢(정치64-68)동문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메달리스트의 영예는 81타를 기록



한 金洙五(정치85-89)동문에게 돌아갔다. 金義英(정치80-84)·조현욱(사회88-93)동문도 81타

를 쳤으나 각각 통기스트상과 개인전 2위에 올라 메달리스트상을 양보했다. 니어리스트상은 1.2m

안착시킨 李相賢(사회70-74)前 국방부 장관이 받았다. 진양밸리 CC 소유주인 KPX홀딩스 梁圭模(사회61-65)회장이 이날 만찬을 찬조했으며, 金炳龍(사회72-77)동문이 기념품을 협찬했다.
한편 정외과동창회는 지난 10월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룸에서 외교통상부 安豪榮(외교75-79)통상교섭조정관을 초빙해 ‘G20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주제로 정례조찬회를 개최했다.

AIP동창회

41기 골프 최다 참가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朴泳求)는 지난 10월 18일 경기도 여주 렉스필드CC에서 1백4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전(최다 참가 기수) : 1위 41기 동기회(15명) ▲메달리스트 : 李俊五(24기)·丘香玉(37기)동문 ▲출인원상 : 정성훈(44기)동문

ACPMP동창회

5기 동기회 골프 최강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徐綜郁)는 지난 10월 4일 경기도 양주CC에서 동문 1백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6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경기 결과 지난해에 이어 5기 동기회가 단체 우승을 차지했으며, 개인전에서도 5기의 河大清동문이 챔피언에 올랐다.
이날 대회를 위해 徐綜郁회장, 이재철(3기)골프회장 등 많은 동문들이 찬조금을 비롯해 디지털카메라, 골프용품 등 푸짐한 경품을 협찬했다.

AMPFRI동창회

체육대회·음식경연서 친목 다져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申一汕)는 지난 10월 9일 서울 안국동 풍문여고에서 2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李炯均부회장, 張玄星·蘇宰範·韓基永·朴秉南·尹煥植전임 회장, 申一汕회장, 모교 보건대학원 白道明원장, 李承旭주임교수, 음식업중앙회 南相晩회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했다.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높고 푸른 가을하늘이 여러분 가슴 속에 그대로 내려앉

았다”고 운을 뗀 뒤 “요새 안티에 이징이라는 이른바 항노화라는 학문이 생길 정도지만 뜻맞는 대화 상대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며 “이런 기회에 좋은 친구와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우승기 전달식, 성화 봉송, 선수 대표 선서가 진행됐으며, 각 기수별로 운동장에 모인 동문들은 체조로 몸을 풀고 족구·발야구·릴레이 경주 등을 하며 우의를 다졌다.
특히 점심 전에 열린 음식경연 대회에는 전어회 무침부터 만두, 연잎밥, 보리냉면, 바비큐, 닭강정, 크림 생맥주 등 다양한 요리들을 선보여 동문들의 입과 눈을 즐겁게 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나승호(7기)·朴恩熙(11기)·주형국(15기)·권기환(17기)·유승배(20기)·이창복(22기)·김진태(23기)동문 등이 음식을 제공했다.
또 申一汕회장이 7백만원 상당의 기능성 침대를 지원한 것을 비롯해 여러 동문들이 푸짐한 경품을 협찬했다. (南)

11. 12 월
행사 캘린더

11월 23일(화) 오후 6시30분

• 화학생물공학동창회 총회

서울 태평로2가 프라자호텔
(문의 : 880-7412)

11월 29일(월) 오후 6시30분

• 사대동창회 송년회

서울 장충동 소피텔엠베서더호텔
(문의 : 6399-6500)

11월 30일(화) 오전 11시

• SGS동창회 골프대회

경기도 광주 남촌CC
(문의 : 880-5669)

11월 30일(화) 오후 6시

• 간호대동창회 송년회

모교 연건캠퍼스 함춘회관
(문의 : 740-8843)

12월 2일(목) 오후 6시

• 축산동문회 송년회

서울 역삼동 상록회관
(문의 : 총무011-9789-4623)

12월 8일(수) 오후 6시

• SPARC동창회 송년회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호텔
(문의 : 880-4353)

12월 10일(금) 오후 6시

• 동송클럽 송년회

서울 방배동 JW메리어트호텔
(문의 : 총무011-412-0757)

12월 14일(화) 오후 5시

• 의대동창회 송년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문의 : 740-8183)

12월 14일(화) 오후 7시

• AMPFRI동창회 송년회

서울 서초프라자
(문의 : 742-8863)

화제의 동문

한국전통문화학교 金 奉 建 총장

석굴암 …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끌어내

전통문화라고 하면 흔히 ‘보수적이다’,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특히 각박한 현실 속에서 먹고사는 문제와 씨름하다보면 전통문화의 가치는 쉽게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문화가 없는 민족은 결코 오랫동안 번성할 수 없었다. 문화를 지키고 가꾸는 일을 경제적인 개념으로만 따질 수 없는 이유다.

영국, 프랑스 등 문화유산이 풍부한 나라들은 자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우리나라도 현대에 들어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중심에 金奉建(건축74-78)동문이 있다.

역사도시 경주 지킨 일 큰 보람

지난 10월 19일 한국전통문화학교 제5대 총장으로 취임한 金동문은 1983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문화재와 인연을 맺었다. 20여 년의 세월동안 유난히 굵직한 일들을 많이 맡았는데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실장으로 있을 때는 불국사, 석굴암, 창덕궁 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필요한 실무를 맡아 성공시켰다. 또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지을 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세계건축가협회(UIA)와 함께 국제 공모전을 개최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던 일은 1990년대 초 정부가 발표한 경주고속전철 건설계획을 수정케 한 일이었다. 당시 정부는 경주의 도심 한가운대를 지나는 고속전철 건설계획을 발표했는데 金동문이 이끄는 연구팀이 끈질긴 연구와 노력 끝에 이를 백지화하도록 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천년 가까이 수도의 자리를 지킨 도시는 흔치 않아요. 그런 면에서 경주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그런 도시의 심장을 관통하는 고속전철이 생긴다니 학계는 물론 언론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해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재연구소에 있던 우리팀이 6개월 정도 야근하면서 경주 외곽으로 고속전철을 돌리는 방안을 만들어 제시했어요. 학계와 언론이 지지를 많이 해줘서 결국 우리가 만든 계획안이 정부안으로 채택됐죠.”

이 사건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논쟁에서 최초로 보존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면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바꾼 의미 있는 일이기도 했다. 이전에는 건물 하나, 유물 하나 등의 단일 요소를 문화재로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문화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계획안은 하나의 도시 전체를 문화유산으로서 인정하고 보존하도록 한 최초의 정책이었는데 그것이 성사돼 정말 기뻐요. 문화재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기도 했죠.”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는 문화재 전문가이지만 金동문이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우연한 기회에서 시작됐다. 1985년부터 2년 간 영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던 시절, 金동문은 주말이면 오피마켓에 놀러가곤 했다. 그때 유독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는 작은 생선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1백년의 전통을 지닌 가게였다고 한다. 그 작은 가게를 통해 생활의 작은 부분에서조차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는 영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됐고, 이는 문화적인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자국의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영국인들의 마음이 ‘비틀즈’와 같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이후 문화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



게 됐다. 귀국 후에 우리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에 전념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장 실기교육 강화할 것”

이후 金동문은 문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면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설립에도 참여했다. 한국전통문화학교를 만드는 근거법인 ‘설치령’을 만들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짰다. 그렇게 설립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10여년 만에 다시 돌아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기분은 어떨까.

“아마도 이전에 제가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하라고 제게 큰 임무를 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막상 학교에 돌아와 보니 문화재 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실기교육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그는 앞으로 현장 실기교육을 강화해 기존의 대학들과 차별화된 전문 인력을 길러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진취적이고 개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교양 강화를 다양화할 예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우리 학생들이 비록 전통이라는 것을 한 손에 쥐고 있지만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진취적이고 개방적으로 사고하기를 바랍니다. 전통문화를 공부한다고 해서 국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글로벌한 인성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국내 최고의 문화재 전문가인 그가 생각하는 최고의 문화재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우리의 문화재 중 종묘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다. 종묘대제를 통해 아직도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묘는 과거와 현재의 삶이 함께 엮여 있는 문화재라는 이유에서였다.

“왕실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 종묘는 평소에 쓰는 공간이 아닌, 죽은 자들을 위한 곳이에요. 건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종묘 앞에 가면 경건함과 엄숙함을 느낄 수 있죠. 수평적으로 길게 뻗은 공간만으로도 절제의 미를 느끼게 해주는 종묘는 유교 건축의 백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문화재와 달리 아직도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문화재들이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과는 다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종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종묘의 경우처럼 진짜 문화재라면 하드웨어인 유형문화와 소프트웨어인 무형문화가 조화를 잘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오래됐다는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담아낼 수 있어야 진정한 문화재라는 것이다.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과거 속에 살지만 늘 새로운 생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이기에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못 기대된다. (智)

“조선왕조실록 英譯·리더십 한국사 강좌 개설하겠다”

동문을 찾아서

李 泰 鎮 국사편찬위원장



대 담 : 蔡耕玉(매일경제신문 뉴스속보부장)논설위원

－ 모교 개교 원년 조정 사업의 이론을 제공해 주셨는데, 결과에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그만하면 잘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원래 개교 원년 조정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모교가 전 세계 10위권 내로 진입하는데 역사가 너무 짧다는 점에서 시작했는데요. 저도 이번에 꼼꼼히 연구하면서 느낀 거지만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면면한 역사의 흐름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해외에 나가는 학교 소개 책자에는 개교 원년과 개학 연도 둘 중에 하나를 때에 맞춰 쓰면 되겠죠.”

－ 국사편찬위원회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건물도 멋있고, 일하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연구직만 46명 정도 돼요. 대부분이 박사 학위를 갖고 있어요. 너무 조용하죠”

－ 정말 학문적인 분위기에서 공부하기에 최적의 입지 같아요.

“숨어서 뭐 하는지 몰라요.(웃음) 이 방만한 공간에 2~3명이 들어가는데 서울대 교수연구실보다 낫죠. 박사급 인재들이 모여 같은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면 우리나라 역사를 발전시키고 재조명하는 훌륭한 두뇌집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담한 후에 상황 파악을 해 보니까 편찬위 연구원들이 대학 교수가 못됐다고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한국사에 관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는 일류 학술기관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사를 편찬하는 곳인가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조선시대 춘추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고요. 실제로 대한민국사, 상해임시정부사 등을 편찬했지만 학계에 연구자료를 공급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 교과서와는 상관이 없는 거군요.

“사실 검인정 시행 전에는 국사편찬위가 국정교과서의 주무기관이었어요. 검인정 제도로 바뀌면서 교육과학기술부로 검인정권이 넘어갔죠. 그런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검인정 제도의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지난 8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검인정 관리 업무를 유관기관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에 따

라 한국사 검인정 업무가 편찬위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 그건 잘된 일이네요. 국민들은 국사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선택 과목으로 결정을 내렸을까요.

“소위 3공화국 때는 국사가 필수였다가 5공화국 때 선택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당시 군사정권을 타도한다고 학생 운동이 강했잖아요. 그때 잘 아시다시피 계급투쟁설이니 뭐 이런 것이 한국 현대사 설명에 많이 도입됐고, 그 폐해를 구실로 해서 필수과목에서 없애버렸습니다.”

－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 꼴이네요.

“맞아요. 그게 하나 있고 또 국사가 선택 과목이 되면서 사회 과목과 연관된 분야의 교사들도 국사를 가르칠 수 있게 된 점이지요. 모든 사범대에 교육학파가 있잖아요. 그 분들이 대부분 사회 교사가 되거든요. 일부 사회교사는 어떤 과목에 대해서 일정 연수만 받으면

모교 국사학과 李泰鎮(사학61-65)명예교수가 지난 9월 29일 국사편찬위원장

에 취임했다. 李위원장은 본회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모교 개교 원년 조정 사업’의 이론을 제공하며 ‘모교 開學 1895년’이라는 진전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

조선시대史부터 구한말 대한제국까지 근현대사 연구의 태두로 꼽히는 李위원장은 조선에서 대한제국-대한민국으로 이어진 면면한 역사의 흐름을 재조명하고 강제와 불법으로 점철된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대한제국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역사를 발굴해냈다.

그 과정에서 李위원장은 외규장각 도서관 프랑스 반출 사실 규명에 이어 올해 5월에는 한·일 학자 및 지식인 1천여 명이 참여한 ‘한·일강제병합의 불법 무효 선언’을 이끌었다. 모교 인문대학장 시절엔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을 개설해 CEO들 사이에서 인문학 바람을 일으키는 등 사회 속으로 다가가려는 서울대인의 모습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가을이 깊어 가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단아한 전통양식 건물이 인상적인 과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李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 李泰鎮위원장은

△1943년 경북 영일군 출신 △서울 성동고 졸업 △모교 사학과 학사 △모교 대학원 사학 전공(석사) △육군사관학교 사학과 교관 △경북대 사학과 전임강사 △모교 국사학과 교수 △모교 규장각 도서관실장 △진단학회 회장 △역사학회 회장 △美하버드대 동아시아학과 방문교수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회장 △모교 인문대학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동경대생들에게 들려준 한국사’ 등 저서 다수 △백상 출판문화상 저술상, 3·1문화상 학술상 수상

다. 그러면 하기 싫다.’ 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재미가 없어서 멀리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 아직도 우리나라 교과서는 ‘영희야 철수야’ 하던 시대의 재질에 그 삽화, 그 내용으로 돼있잖아요. 요즘 좋은 책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 동화책만 봐도 일러스트레이션이 너무 좋은데 교과서만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미국 교과서와 우리 교과서를 갖고 와서 ‘비교해 봐라’ 그러더군요. 많이 떨어지죠. 내용이 좋으면 그래도 괜찮았는데..

국사편찬위로 검인정 역할이 넘어오면 검정교과서의 서술 형식, 적어도 이런 식으로 써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제시를 하면서, 학생이 왜 이런 역사가 생겼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요. 사건 나열식으로 하지 않고요. 학생 설문을 해보면 연대를 섞어 놓고 ‘바르게 짚 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흩어진 업무 ‘선택과 집중’으로 체계화

편찬위를 한국史 대표 학술기관으로

면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사학과 출신들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복권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있어요.”

－ 다수의 이해관계충이 있어서요?

“그게 현실이에요. 또 반성해야 할 점이 역사교과서가 재미가 없어요. 검인정으로 되면서 현장경험을 살린다고 교사들도 집필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동필자 5명 가운데 교수는 1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모두 고등학교 교사예요. 그 분들이 교과서의 대부분을 씁니다. 그 분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교과서든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작업을 해야 서술에 힘이 있고 내용이 풍부해집니다. 그런데 교육 경험만 있는 사람들이 교과서를 집필하다 보니 참고서처럼 돼버려요.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교과서에는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사건을 나열해서 연대를 외우라고만 한

같은 시험 문제를 제일 싫어한데요. 그래서 선택을 국사 과목으로 안하고 사회로 가버린 대요. 우선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과서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교사들의 문제, 즉 사학과 출신들이 가르쳐야 설명도 풍부하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합니다.”

－ 교과서는 사실 아주 작은 부분이고 앞으로 하실 사업들이 정말 많으시죠.

“검인정 업무는 전 국민 교육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니 기반이 잡힐 때까지 열중해야겠고, 그밖에 여기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많지 않아 일단 설립도 고려하고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처럼 재단을 만들어 재원이 확보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죠.

편찬위에서 해외 사료도 수집하고, 국내 구술 자료도 수집하는 등 정부 수립 이후 이것 저것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벌려놨어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선택하고 집중을 하려고요.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허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도 확실하게 연구자들이 잡아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줘야죠.”

－ 편찬위에서 한국사 강좌를 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정 감사 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장들이 모임 기회가 있었어요. 초반에 각 기관들이 지난 1년간 일들을 보고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때 이런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조선왕조실록을 영어로 번역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일입니다. 영어권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조선왕조실록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 받았잖아요. 학문적으로 세계 학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우리 것을 세계 각계각층에 알리는 일이니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편찬위가 한국사 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리더십 한국사’란 제목으로 과천과 광화문에 강좌를 개설하겠다고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원한다면 여의도에도 개설할 수 있고요. 법학계적으로 강의를 알차게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동원해서 내년 초에는 발동을 걸어야 할까 중입니다.”

－ 우리나라가 격변기를 겪었잖아요. 그 와중에 사회자들도 양대로 나눠진 면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시 뭐라 할까, 22세기를 바라보며 합의를 이루고 절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선-대한제국-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정체성 되찾아야”



“그게 참 힘들었어요. 교수 시절에도.”

— 모교 개교 원년 찾기 논의 과정에서도 힘들었잖아요.

“현상적으로 보면 좌익 역사관은 항일 독립운동 성격을 과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해방 정국에서, 남북 분단 속에서, 대한민국 쪽에서는 좌익 타도가 계속 됐단 말이죠. 억압을 받다보면 억압받는 것 자체로 정당성이랄까 하는 게 생기죠. 탄압 받는 쪽은 자기가 실제로 실패이나 실행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면 정당하다는 인식이 생기죠.

일본의 경우 극렬한 좌익이 있었지만 전황제 하에서 탄압이 아니라 그냥 풀어놨잖아요. 결국 7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에 사회주의 정당은 있지만 공산당은 약화됐죠. 우리나라는 분단상황 속에서 좌파가 용납이 안 되니까 지식인 사회에서 더 강하게 형성됐죠.

문제는 민족사예요. 역사는 민족사죠. 그런데 민족과 국가가 일치됐을 때는 그냥 민족사가 국사가 되는데, 우리의 경우 민족이 분단돼 2개 국가로 돼 있던 말이죠. 대한민국이란 국가 입장에서 먼저 역사를 정립하고, 민족통일 지향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부차적으로 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구한말은 우리가 웬지 외면하고 싶은 역사잖아요. 그 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

제와 정부가 무능해서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기존의 당연시되던 명제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됐죠. 의심을 갖고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의 인식을 뒤집는 사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연구 분야가 바뀌었죠.

저는 일본 식민지 역사, 고종 시대에 대한 왜곡된 교육의 영향으로 조선에서 대한제국-대한민국으로 면면이 이어지는 우리의 국가사에 대해 뚜렷한 승계의식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조선왕조, 대한제국의 승계관계가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역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이 한국 사회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 지난 5월에 일본 학자들과 함께 한·일병합 무효, 불법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일본 사학자들과 소통을 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지 않았나요.

“그렇죠. 우리 세대가 특히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했죠. 대



‘한·일 강제 병합 무효 선언’ 주도

“역사교과서 검인정 업무에 최선”

동기가 있으신지.

“조선시대사 연구자들은 영·정조 등의 국가 운영을 연구하다보면 ‘쉽게 말할 나라가 아니다’라는 신념을 갖게 돼요.

더 직접적인 계기는 1988년부터 모교에서 규장각 도서실장을 했어요. 그때 규장각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외규장각 자료를 법령부터 먼저 정리하다 보니 프랑스 로즈 제독이 병인양요 때 퇴각하면서 본국 해군성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값나가는 보이는 책 3백여 권을 수장할 만한 가치가 있어 가져가고 나머지는 건물과 함께 불태우고 갑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제법을 전공하는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정부를 통해 외규장각 도서 반환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종시대에 생산된 국가 공문서를 정리하다가 법령 가운데 순종황제 칙령을 보게 됐는데 사인 필자가 대 여섯 개, 완전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 사실을 확인해 보니 통감부 아래로 대한제국 정부를 집어넣는 관계 법령들이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일제 통감부 관리들이 황제의 사인을 마구 위조해서 마음대로 법령을 만든 거예요.

더 의심을 갖고 국권을 빼앗은 조약들의 원본을 꺼내 봤어요. 을사조약의 경우 제목도 안 달려 있고 ‘제1차, 제2차 日韓協約’이란 것은 사후에 차수를 붙인 거더군요. ‘황

학시절 국사학과 연구실에 들어가 보니 읽어야 할 책은 전부 일본 책이에요. 안 읽을 수는 없단 말이죠. 2학년 때 학교 앞 일본어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당시 분위기가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공부는 하지만 말은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때 정서였죠.

2010년 한국 강제병합 1백년을 기념해서 양국 지식인들이 한국 강제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공동성명에 양국 5백명을 목표로 했는데 양쪽 모두 5백명을 넘었습니다. 일본이 5백40명, 우리가 5백99명. 특히 일본측 절반 이상이 역사학자였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 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10명이 안 됐습니다. 이견 획기적인 변화예요.

문제제기는 한국측에서 저를 중심으로 했지만, 일본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5년 전부터 연구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명성 황후 시해의 주범이 일본의 군부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서울의 장사패라는 것은 연막이었다’라는 연구도 나왔어요. 국가 범죄라는 점을 일본 내에서도 밝혀낸 것입니다. 또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 중에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그 예로 들었는데, 와다 하루키 선생의 말에 의하면 그건 허구라는 거예요. 이런 연구들을 결집해 보니 자기네도 더 버티는 것은 학자적 양심으로 ‘기만’이란 생각이 들어서 많은 일본 학자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 같아요.”

— 경제적으로 아시아에서 일본의 ‘말뼉’이 안 먹히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사과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말뼉으로만 계속 해온 역사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성균관대에 와있는 일본 교수 미야지마 히로시란 분이 큰 화두를 던지고 있어요. 한국에 온지 8년이 지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래도 가면 일본은 완전히 망한다, 무사계승에 대해 미화된 역사를 동아시아사에서 중심 화두로 계속 고집하면 일본은 완전히 고립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시죠. ‘과거 중국, 조선의 역사로 보면 책봉, 조공 질서라는 틀 속에서 평화공존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온 게 동아시아의 본류다. 누가 이기나 할겨루기로 팽창주의로 간 일본의 ‘무사 사회’ 전통이 거의 유일한 예외 케이스인데 그걸 일본민족의 선진성으로 미화해 왔고 일본 역사학계가 지금까지 이를 거들어들었다. 이제는 벗어나자’고 제언을 하고 있죠.”

— 일본은 어떻게 보면 경제력도 약해지고 오히려 위험한 것은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편찬위의 대응은.

“그 문제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맡고 있죠. 우리는 사료편찬을 탄탄하게 해서 우리측 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 밖에 없는데, 결국 중국이 원속해지는 수밖에 없죠. 중국이 계속 그러는 것은 뭐라고 제동을 걸기 어려우니 그 주장이 국제적으로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에 우리는 역점을 뒀야 돼요. 그 한 방법으로 동아시아 범주에 속하는 역사사전을 우리가 영어로 번역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일입니다. 세계 각 국에서 검색할 때 우리가 연구한 동북아역사 내용이 나오면 중국측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한테는 안 먹히거나 적어도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선제 작업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죠. 역사를 전공하게 된 동기가 있으세요.

“청소년 때까지 경상도 농어촌에서 보냈기 때문에 당시 정서가 내 관심 분야보다는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취업하기 좋은 분야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고3 때 담임선생님을 무척 존경했는데, 그 분이 저한테 ‘나는 외교학과를 나왔지만 지금 다시 공부한다면 사학을 하겠다. 역사 공부가 참 중요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케네디 정부에서 특별보좌관을 지낸 아서 슈테인저가 역사를 전공했다는 등 귀동냥도 있고, 또 역사 공부를 좋아해서 부모님은 썩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사학과에 입학하게 됐죠. 입학해서 처음에는 당시 트렌드인 서양사를 해야지 하다가, 대학 3학년 전공을 선택할 땐 국사를 선택했어요. ‘한국인인데 국사를 해야지’ 하는 단순한 마음이었죠.”

— 후배들이나 재학생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또는 역사학자로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뭘 하든 간에 근본에 충실한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모든 것을 만드는 원천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 경험으로도 보면 외규장각 반환이나 일본의 한국병합 불법성 문제 등을 밝혀낼 수 있었던 계기도 산더미 같이 쌓인,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자료들을 ‘나라도 정리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출발했거든요. 18년 동안 묵묵히 자료정리를 성실하게 하다보니 전문가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든 한 우물을 골골게 파고들면서 충실하게 신념을 다하다 보면 같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첫째 요건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선조들, 특히 관직에 나간 유학자들은 ‘세상의 근심은 내가 제일 먼저 하고, 나의 즐거움은 나중에 한다’는 신조로 사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런 고매한 철학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서울대생들은 그런 정신을 좀 유지하고 계승·발전시켜줬으면 좋겠어요.”

— 자체 분은 어떻게 되세요.

“딸 아이 하나예요. 미국에서 학부를 나오고 컬럼비아대에서 도시계획 석사과정을 마쳤어요. 지금은 모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쓰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죠.”

— 위원장님은 지금도 잘 생긴 편이신데, 젊은 시절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사모님과 어떻게 만나셨어요.

“별로 인기도 없었고 여성과 사귀는 재주가 없었어요. 첫 부임지가 경북대였는데, 대구 출신 동료 교수들이 장가보내야겠다 해서 제자 중에 한 명을 소개시켜줬어요. 그쪽도 고대사를 전공해서 지금은 한림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매일 옛날 이야기하고 지냅니다. (웃음)”

— 긴 시간 감사합니다.

(사진·정리= 金南柱기자)



“집착·이기심 버리고 함께 하는 미래 실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등 시상·표창

개학 115주년 개교 64주년 기념식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10월 14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학 115주년·개교 64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본회 林光洙회장·孫一根상임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權彝赫·趙完圭전임총장, 신양문화재단 鄭哲圭이사장, 모교 보직교수 등 교직원, 재학생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20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재불 서지학자이자 플레쥬 드 프랑스(College de France) 왕실고문연구원인 朴炳善동문을 선정, 증서와 기념패를 전달했다. 朴동문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재직 당시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直指心體要節’을 찾아 세계에 알리는 데 공을 세웠다. (17면 프로필·수상소감 참조)

모교는 1991년부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해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분들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그에 앞서 이날 행정대학원 奇世勳행정서기 등 52명이 30년 근속, 중앙도서관 金美香사서주사 등 48명이 20년 근속 표창을 받았다.

또 관악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정우(경영학과, 수강신청 도우미 ‘SNU 타임’ 개발)·고희석(전기공학부, 저소득층 청소년 및 중증 장애인 봉사활동)·육은석(법



李昇鍾연구부총장·林光洙회장·朴明珍교무부총장·朴炳善동문·吳然天총장·李仁浩명예교수

학부,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지도 봉사활동)·변상영(의학과·본회 장학생, 이윤진료회 의료봉사활동)학생에게 각각 학업장려금 1백만원을 전달했으며, 무보수로 10여 년간 모교 야구부 코치 및 감독으로 활동한 卓正根(체육교육86-90)동문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한편 재학생들의 봉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공모 결과, 간호학과 구보연양이 ‘매개한 영등포역의 희망 한 시간’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 농경제사회학부 이재형 군과 융합기술과대학원의 안 나 양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이날 吳然天총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평의위원회와 동창회가 서울대 ‘개학연도’를 법관양성소 설립 시점인 1895년으로 정한 것은 서울대학교의 전통과 자부심을 더욱 빛내주는 조치”라며 “오늘이 있기까지 갖은 어려움을 감내하며 묵묵히 서울대학교의 역사를 일구

어 오신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남이 어떻게 되든 우리만 잘되기를 바라는 집착과 이기심”이라며 “함께 하는 미래”를 제안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기념사 요지 참조)

權彝赫전임총장은 축사에서 “법인체제를 앞 둔 시점에서 우리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어느 때보다 더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서울대인들이 되기를 부탁했다. (축사 요지 참조)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된 朴炳善동문과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 뒤 “33만 동문들은 吳총장님의 비전이 실현돼 모교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비상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사 요지 참조)

이외에도 이번 행사는 쇼팽의 연인으로 잘 알려진 조르주 상드에 관한 연극과 쇼팽 콩쿠르 심사위원장인 피오토르 팔레치니(Piotr Paleczny)교수의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해 음악뿐만 아니라 쇼팽의 예술 세계와 철학을 다룬 보기 드문 행사로 호평을 받았다. (榮)

吳然天총장 기념사 (요지)

최근 서울대학교 평의위원회와 동창회가 서울대 ‘개학연도’를 법관양성소 설립 시점인 1895년으로 정한 것은 우리 서울대학교의 전통과 자부심을 더욱 빛내주는 조치였다고 믿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갖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서울대학교의 역사를 일구어 오신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개교 이래로 우리 학교가 이룩한 발전상은 세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해방 직후의 혼란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는 물론 한국경제의 개발연대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서울대학교를 곳곳이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점이 오늘의 서울대학교를 있게 했다고 믿습니다. 갖은 난관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미래를 꿈꿔 왔으며, 당시 꿈꾸던 미래가 지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서울대학교가 한국 사회의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앞장설 시기가 도래했으며, 저는 우리 구성원 모두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개교기념일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책무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만의 대학이 아닙니다. 민족의 대학이며 세계인의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남이 어떻게 되든 우리만 잘 되기를’ 바라는 집착과 이기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함께 하는 미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모든 가족이 이 제안의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법인화’라는 대학체제 전환의 과업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인화 자체가 아니고 법인화의 기본정신과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대 정신이 담겨야 하며, 구성원 모두가 끊임없는 자기혁신에 임해야 합니다. 법인화로 인해 발생할 지도 모르는 학내 구성원의 이해 상충과 학문간 불균형의 심화와 같은 어두운 면을 예방할 방안을 치밀하게 구상해야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금까지 국제화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와 아시아권의 부상을 관찰하면서 국제화의 패러다임도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류 및 협력 대상을 다변화하면서 아시아 특유의 학문적 담론과 한국의 독자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서울대학교가 아시아대학들 간의 학문적 가치 창조의 허브로 격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미래’는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헌신과 희생을 각오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개교 64주년을 맞이해 저는 모든 서울대학교의 가족들을 향해 이 작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협조하고, 주변을 향해 관대한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 서울대학교의 미래는 한층 밝아지게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權彝赫전임총장 축사 (요지)

세계의 대학 중의 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현재의 서울대학교가 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더욱이 법인체제를 앞에 두고 있는 처지여서 우리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장의 임기가 짧아서 leadership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컨대 李長茂총장께서 진행하시던 정책을 吳然天총장이 계승해서 이끌어 나간다면 그만큼 leadership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제가 모교에 바라는 소망의 하나가 하루 빨리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하버드대 Eliot총장이 40년간의 총장직을 마치고 떠나면서 남긴 이임사 중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갈 길을 생각하고 선택한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吳然天총장께서는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언제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갈수록 있도록 서울대학교를 끌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문대·미대·음대

쇼팽 탄생 2백주년 행사

모교 인문대학(학장 邊昌九)·미술대학(학장 章洙弘)·음악대학(학장 鄭台鳳)은 쇼팽 탄생 2백주년을 맞이해 공동으로 지난 10월 11~28일까지 ‘2010 쇼팽,

온다’를 개최했다. ‘쇼팽의 신화와 실재’라는 주제로 관악캠퍼스 곳곳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쇼팽 스페셜리스트인 쉰 첸(Sa Chen)의 독주회를 비롯해 영국 케임브리지대 존 링크 교수의 특강, 모교 교수들이 참여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林光洙회장 축사 <요지>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족의 대학으로서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상과 명성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전과 꿈을 실현하고자 헌신해 주신 선배 총장님, 교직원과 재학생, 그리고 동문 여러분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분들의 헌신적 봉사에 대해 감사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直指心體要節’을 찾아 세계에 알린 재벌 서지학자 朴炳善동문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모셨습니다. 朴炳善동문께서는 인류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우리나라와 모교를 크게 빛내주셔서 매우 자랑스럽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금속공로 표창을 받으신 교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울대학교는 1946년 기존의 국립고등교육기관들을 통합해 종합대학으로 개교했고 각 단과대학의 모태가 된 고등교육기관들의 학문의 개척은 18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와 같은 교육기관들은 근대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지의 일환으로 설립돼 세계의 신문명을 연구,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그 의의가 컸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개인들의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지식기반사회는 바로 창의적 글로벌 인재들이 이끌어 갑니다. 인재양성을 주기능으로 하는 세계의 대학들도 무한경쟁 속에 그 존재의의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吳然天총장님께서서는 우리 모교를 ‘민족정신에 뿌리를 두고, 첨단의 지식을 향도하는 학문적 가치창조의 세계적 리더’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에게 보다 개방된 서울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33만 서울대 동문들은 吳總장님의 Vision이 실현돼 모교가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 비상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금년 말이면 우리 총동창회가 역점을 두고 건립하고 있는 장학빌딩도 완공됩니다. 그러면 동창회 재산도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며 총동창회에서는 장학빌딩 수익사업을 극대화해 장학금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모교 교수님들의 연구활동비도 지원하는 등 모교의 인재양성과 연구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래알 같았던 서울대인들이 단합해서 이룬 쾌거라고 생각하고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인은 역사와 민족 앞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삽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대학교가 명실상부한 세계의 초일류대학으로서 국가와 인류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합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朴炳善동문의 프로필·수상소감

‘직지심체요절’ 代母

“찬란한 문화유산 계승·발전시켜야”

재벌 서지학자인 朴炳善동문은 1950년 모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 후 1971년 프랑스 고등교육원(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7년부터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면서 1890년대 초 주한 프랑스 대리공사로 재직했던 플랭 드 플랑시가 우리나라에서 반출한 ‘直指心體要節’을 발견했다.

朴동문은 연구와 고증을 통해 ‘直指心體要節’이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임을 알아냈다. 이 자료를 1972년 유럽에서 개최된 세계동양학대회 및 파리국립도서관이 주체한 ‘BOOKS’ 전시회에 공개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했으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데도 기여했다.

또 朴동문은 1975년 베르사이유에 위치한 프랑스 국립도서관 별관 수장고에 방치돼 있던 ‘外奎章閣儀軌’ 1백91종 2백97권을 발굴했다. 朴동문은 이 문서를 대대적인 수리와 복원 작업을 거쳐 1978년 일만에 공개했으며 한국으로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중 도서관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10여 년의 연구를 통해 ‘外奎章閣儀軌’ 2백97권의 해제를 완성하는 등 관련 연구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朴동문은 2009년 남아있는 병인양요 자료를 찾기 위해 귀국했다



가 직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수술 및 3번의 항암치료 끝에 최근 퇴원했다.

가족도 없이 홀로 이국 땅에서 평생을 학문연구에 헌신한 朴동문의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모교 사범대학교수회와 동창회, 역사교육과동창회 등 많은 개인과 기관에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추진해 소기의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1999년 은관 문화훈장, 2001년 KBS 해외동포상, 2007년 국민훈장 동백장, 비추미여성대상 특별상, 2009년 자랑스러운 서울대 사범대인상 등을 수상했다.

수상 소감 <요지>

吳然天총장님, 李長茂전임 총장님, 林光洙총동창회장님, 교수님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학생 여러분. 오늘 모교 제64주년 개교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저를 자

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교를 빛낸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 데 저에게 이런 상을 주심을 저 개인적으로는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는 1955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날 때 당시 스승이었던 李丙燾교수님께서 프랑스에 가면 병인양요때 강화도에서 가져간 물건들과 책들이 있을텐데 그것을 우리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하든지 찾아보라고 간곡하게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으며 그 저 공부하는 학생, 연구하는 학자의 자리에서 제 소망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해보면 우리 선조님들께서 이뤄놓으신 찬란한 문화유산이 세계에 빛을 발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가득하게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仁祖가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해 지식과 정보를 대량으로 보급시키게 된 것을 3차 정보혁명이라 평가하는데, 이제 정보혁명의 4단계라고 하는 컴퓨터를 탄생시킨 것도 금속활자 덕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 바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그리고 서울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세계 문화의 중심국가로 건설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모교가 지성 있는 세계 최상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이 사회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요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기공

강원도 홍천군에 2012년 건립



모교와 강원도, 홍천군이 공동 신화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기공식이 지난 10월 12일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연구단지 내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모교 李昇鍾 부총장, 의대 任廷基학장을 비롯해 李光宰강원도지사, 모교 병원 金承協부원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총 9만3천6백91㎡에 건립하는 연구소는 모교 3백17억원, 강원도 67억5천만원, 홍천군이 74억5천만원 등 총 4백59억원을 투자해 2012년 완공 예정이다.

국내 최고 면역의학 연구시설이

될 연구소에는 신약 원천기술 연구개발과 의학 연구소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천연물로 고부가가치 의료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모교와 강원도는 연구소가 건립되면 의료관광의 기반이 되고 생명과학의 주축을 이루는 바이오 부문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許弼洪홍천군수는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가 관련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에 있어 큰 힘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재학생의 소리



서울대 축제 재미없다? No!

다수의 1학년 학생들이 그러하듯 저도 입학 후 한 학기는 놀고 마시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2학기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축하사’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아마 선배님들 중에는 ‘축하사’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축하사’는 ‘축제하는 사람들’의 줄인 말로 2003년 총학생회로부터 독립한 축제전담기구로서 봄, 가을 1년에 두 번에 걸쳐 서울대학교 축제를 단독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독특한 컨셉트의 축제를 기획하는데 이번 2010년 가을에는 ‘밥’을 키워드로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이름의 축제가 10월 12일부터 3일간 열렸습니다.

축제의 컨텐츠는 크게 행사와 공연으로 나뉩니다. 이번 가을에는 컨셉트에 어울리는 만원의 만찬(요리대회), 라면 끓여먹기, 떡메치기 등의 행사가 있었고 놀

이터(프리마켓), 스타리그(게임대회), 팔씨름 대회와 체력장, 단체 줄넘기, 영화제 등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연의 경우 스타리그(게임대회), 사우팅(가요제), 파이빙글비(학내밴드공연), 폐막제(학내



동아리공연)가 잔디밭 스크린과 중앙도서관 앞 메인 무대에서 이뤄졌습니다.

저는 가요제를 담당했습니다. 가요제는 2010년 봄 ‘관악가요제’로 처음 선보인 이후 가을에는 ‘사우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 노래나 춤에 자신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모

두)이라면 누구나 참가신청 가능합니다. 21개팀이 지원했고 예선을 통해 8개팀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8개팀 모두 예선 때보다 실력이 늘어서 1·2·3등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았고 결국 즉석에서 4등을 만들어, 응원상을 포함해 모두 5개팀이 수상의 영예

李 소 라(자유전공10입)

모교 축제 가요제 담당

를 안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축제는 재미없다’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 중이지만, 저희의 샘솟는 아이디어들이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여럿 있는 것은 항상 아쉬움이 남는 점입니다. 선배님들께서 저희 재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조덕환 作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참모들’ 1953년.

미술관

‘한국전쟁의 초상’ 전시

미술관(관장 鄭馨民)은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국전쟁의 초상’ 전시회와 지빌레 베게르만(Sibylle Bergemann) 사진전을 연다.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기획된 ‘한국전쟁의 초상’ 전시회에서는

전쟁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작품을 비롯해 참전과 이산의 고통스런 경험을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로 승화시킨 작품 1백점을 선보인다.

한편 독일문화원과 공동으로 기획한 지빌레 베게르만 사진전에서는 1960년 말부터 현재까지 촬영한 사진 1백25점을 소개해 지

금까지 독일 외부에서는 체험하기 힘들었던 구동독의 사진을 감상할 수 있다.

1941년 베를린에서 출생한 지빌레 베르게만은 패션, 보도물, 풍경, 도시경관, 인물사진 등을 두루 선보인 독일의 대표적인 현대 여성 사진작가이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 및 국경일은 휴관한다. 〈문의 : 880-9504〉

박물관

일본 고대문화 특별전

박물관(관장 宋基豪)은 지난 10월 14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와세다대학에서 온 일본의 고대문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조몬(縄文)시대부터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고훈(古墳)시대에 이르는 일본의 고대 유물 2백50점을 관람할 수 있다.

또 일본의 토기와 토우를 비롯해 각종 생활도구, 뼈로 만든 장신구 등을 통해 일본 고대인의 삶과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일요일 및 국경일은 휴관한다. 〈문의 : 880-5332〉 〈열〉

공트 릴레이

검은 노인

崔 文 僖(본명 崔慶林 지리교육54-58)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



사람들의 흐름이 가파르게 흘러간다. 한국 역 6번 출구 증계참, 그는 고개를 쳐들어 잠시 숨을 고른다. 네모진 하늘을 배면으로 사람들의 하반신들이 빠르게 교차한다. 늘 이 계절, 인사동 하늘은 푸르죽죽하거나 미적지근하다. 지상으로 이어진 계단은 까마득하다. 올라가야지. 그런데, 어찌자고 벌써부터 조임 봉대라도 감은 듯 가슴이 죄어온다. 인사동이 그의 생리에 반응하는 습관적인 밀폐 감인지도 모른다. 인사동은 그에게 있어 무언가의 ‘문턱’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라는 말인지도 모른다.

오늘 아침, 그는 언제나처럼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일터인 사과밭으로 달리고 있었

얼음 낀 요פק기를 깔고 앉아 매번 도루묵으로 마감되는 현상공모, 손가락에 동상이 걸린 채 취업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위해 수없이 쓰고 찢던 이력서들. 그는 문득 깨달았다. 디자인이나 생활도 하나의 형태라는 자각을. 자신의 삶이 어떤 형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 결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의 형태라는 틀 속에 포함된다는 무거운 진실이 눈앞에 명징하게 떠오르는 순간, 그는 모든 걸 훌훌 털어내고 아버지의 과수원으로 잠적했다. 그건 형태를 갖추지 못한 자신의 어설피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안숙은 낙향하려는 그를 비웃었다. 깨버려, 디자인은 형태 자체를 부시는데 의미

헤어진 모양이었다. 안숙의 일상들은 그녀와는 고등학교 동창인 경미가 메일로, 혹은 전화로 알려 주었다. 그러나 이번 출행은 그런 휘청거림이 아니다. 경미의 전시회를 발미로 그녀의 근황이 그를 달뜨게 만들었다.

조안숙, 그 이름을 부르거나 들으면, 아리고 저린 통각이 몸의 깊고 어둔 곳에서부터 서서히 끓어올랐다. 그는 내내 혼자였다. 결혼이라는 형태가 그를 거부했을 것이다. 결혼이라는 틀 속에 안주할 자신이 아니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안숙이 혼자됐을 때 잠시 생각했다. 그녀를 내 인생 골레로 이입시켜도 될까? 건강한 접목이 가능할지 자신이 없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안숙이 왜 결혼 안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때 안숙이 느닷없이 그 말을 뱉어냈다. 완주썬 정말 덜렁방귀야. 남의 마음 같은 건 읽을 생각도 안 해. 거죽 밖에 볼 줄 모르지. 그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런 그를 안숙이 빗긴 눈길로 바라보았다. 관심이었는지 적의였는지 혹은 사랑이었는지 헤아리지 못했다. 웬지 조금 미안했고, 많이 아팠다. 그러나 이제, 안숙이 아프다면 내가 그녀의 생을 접수 하리라는 절박함이 그를 여기까지 내몰았을 것이다. 바짝 졸라맨 목덜기처럼 오랜 세월, 억제하고 가두었던 그놈의 형태라는 틀에서 그는 시나브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인사동을 걷는다. 조수처럼 쓸리고 밀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잠시 그 혼란 속에 자신을 세워둔다. 깊고 두텁고 건조한 모래사막을 헤쳐 나온 것 같은 흥가분함, 싱그러움,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노와 목마름이 교차하면서 일시에 폭죽처럼 터진다.

이거였나? 인사동은 그에게 있어 삶과 환상의 접미지역이다. 무슨 구실을 붙여 서라도 일 년에 서너 번 올라온 했다. 안숙이나 경미를 불러내지는 않았다. 단지 안숙이 숨쉬고 있는 인사동 언저리를 맴돌면서 한나절을 보냈다. 경산 버스터미널이나 서울역 광장에 발 걸치고 서서 반생을 날려 버렸다. 등골 휘어지도록 농사지는 사과 한 상자나 쌀 한 가마니 팔면 얼마나 남는다고, 이 지랄인가, 그는 스스로를 수없이 질책하고 후회하고 반성한다. 눈두렁에 얹힌 현기증을 손바닥으로 흠친다.

가슴이 설렌다. 이 공간 어딘가에 안숙의 향기가 스며 있으리라. 은유하고 나른한 이미지에 겹쳐진 그 가슴 안 되는 열정의 토로는 너무 버거워 다가갈 수 없었다. 전시장 들머리 벽에 눈이 가는 순간 그는 걸음을 멈춘다. 거기 안숙의 이름자가 붙은 그림들이 걸려 있다. ‘검은 노인’, ‘콩깍지 어르는 손’, ‘오디 따는 검은 남자’, ‘까만 치아’ 그리고 1백호짜리 대형 캔버스가 그의 눈을 확 잡아당긴다. ‘수로와 갈대’. 끌어온 물길에 새지 않도록 나무 각목으로 덧댄 수로 양편으로 허연 억새가 어우러졌고, 오른편 구석에 아프리카의 부시맨 같이 생긴 노인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있다. 까맣게 오그라든 노인, 영락없이 그 자신이다.

언젠가 모임자리에서였다. 뒤늦게 자리에

온 안숙이 앉자마자 그 특유의 코 주름을 잡고는 살포시 웃었다. ‘검은 노인’ 오셨네. 했다. 무슨 뜻이냐고, 이제 겨우 서른 고빈데, 내가 노인으로 보여? 그런 말도 한 것 같다. 너무 편한 얼굴이라서, 안주하고 싶은 분위기잖아. 뒤늦게 합석한 경미도 한마디 거들었다. 오빠, 사람을 편하게 해요. 마음의 지퍼가 깊숙한 데까지 열려 있어, 무슨 말이트지 다 스편지처럼 빨아들이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경미가 킁킁거린다. 오빠 덜렁방귀래. 덜렁방귀? 그는 혁, 헛바람 빠지는 신음소리를 냈다. 그러지도 모르지. 그는 맥없이 웃는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를 밀어내고 있었기에, 그때 그의 심장에 빗금 하나가 지나갔다. 나는 아니다, 그는 서울에서의 뜨내기 생을 포기했다. 창조행위란 아무나 하는 짓거리가 아니라는 명징한 깨달음이 그를 후려쳤다.

내가 너무했지? 모델료도 안주고, 안숙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노인이냐? 하필. 그가 통명스럽게 내질렀다. 안숙이 나직이 웃는다. 농익었잖아. 안과 속이 까맣게 무르익었어. 무르익은 과육에서 배어나온 향이 세상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 주잖아. 그게 진국이라는 것과 동의어라는 거 몰라? 정말 덜렁방귀네. 완주썬, 그렇게 익은 세월을 살고 있잖아. 때로는 쓸쓸하고 슬퍼도 그냥 웃고 살아야지, 완주씨처럼... 경미가 웃음보를 터뜨렸고 그도 덩달아 웃었다. 밤이 내리는 썰렁한 전시실 가운데 선 세 사람은 조금 오버한 것 같은 폭소를 저마다 게워냈다. 그건 마침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토해낸 웃음소리는 조금은 과장되고, 조금은 을씨년스러웠고, 많이 쓸쓸했다.

저녁은 하지 못했다. 무슨 일인지, 갑자기 안숙이 가슴을 잡고 주저앉았다. 잠깐이면 돼, 화장실로 뛰어 갔다. 경미가 뒤따라갔다. 한참 만에 나온 경미가 콧속말로 위경련이야. 너무 무리한 거예요. 안숙은 어느새 말쑥한 얼굴로 나왔다. 고마워. 저녁은 다음에 해야겠네. 어디 가서 차나 한잔 해. 병원에 가자. 진작 병원으로 갔어야지. 그의 입에서 쇳가루 씹은 듯한 탁한 목소리, 아니라고 고개 흔드는 안숙이. 병원 같은 데 안가. 우울증이란 게, 영혼의 감기라고 하던데, 병원엔 뭐 하러가? 난 지금이 행복해. 일 년, 내내 사과 보내주는 완주씨도 있고, 경미도 있고, 나만큼 행복한 사람도 드물 거야... 숨을 고른 다음 말을 덧붙인다. 과수원 농사는 어때? 안숙이 웃는다. 물그림자 같은 얼굴이다. 한여름 찜초 고비를 넘기고 나면 열매 속기로 또 한 차례 작업을 해야지. 매번, 못난 열매들을 고르고 골라 따낼 때면 손길이 더디고 무디어져. 속아낸다는 것, 사람이나 과일이나 채소나 마찬가지로 착하지 아닌가. 구실 못할 물건들은 초장에 속아내 버린대네. 젊은 날, 그림 그리기에 열정을 쏟아내던 그의 여린 정서는 이런 속아내는 일에 손이 무거웠을 것이다. 그 자신도 속아내진 잡초처럼 내동댕이쳐진 건 아닐까. 끝까지 버텨내지 못한 자신의 낙담이아말로 스스로 이 거대한 도시에서 밀려난 꼴이다.

그는 문득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시간의 단편’을 떠올린다. 두 개의 나뭇가지에 걸쳐져 쇳물로 녹아내리는 시계, 청동 조각품이다. 시간이라는 개념에 곡선이라는 건 없다. 일회적인 단편이 있을 뿐이다. 눈물 흘리는 시계, 현실에서 그런 형상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현실과 환상 속에서 바라보는 시간의 막간이 암시하는 은유는 인간의 내면에 적체된 채 분출하지 못한 원형질의 욕망인지도 모른다. 반평생 안숙이라는 여자를 품고 살았던 허망함이 저물녘, 인사동 네거리에 빗물처럼 흘러내린다.

“ 끌어온 물길에 새지 않도록
나무 각목으로 덧댄 수로
양편으로 허연 억새가
어우러졌고, 오른편 구석에
아프리카의 부시맨 같이 생긴
노인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있다.
까맣게 오그라든 노인,
영락없이 그 자신이다.”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서양화02-07)

다. 오른쪽 바지 주머니 속의 딱딱한 것이 자꾸 살갓을 찔렀다. 사촌누이, 경미의 그림 전시회 카탈로그일 것이다. 그제야 그의 안에서 일주일 내내 움츠리고 있던 갈망의 단편들이 명치끝에서 불쑥 솟구쳐 올랐다. 나하곤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쪽을 넘보는 따위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그는 발걸음도 마음도 오므리고 있었다.

안숙이도 몇 점 참조출품 했어요. 오빠, 너무 오래 숨어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덧붙였다. 많이 안 좋아요. 안숙이요. 왜? 어디가? 그가 연거푸 물었다. 우울증인지, 어디 내장이 고장났는지, 암튼 다 죽게 됐다니까요. 내잠, 다 죽게 되도록 자신을 내버려두는 건 뭔가? 그는 혀를 찼다. 아직 마흔 중반의 말쑥한 생을 방치하다니, 안숙의 나른하고 핏기 없는 얼굴이 떠올랐다. 순간 예기치 못한 그리움이 그를 촉발시켰다. 그는 실에 펜 바늘처럼 대구역으로 내달렸다. KTX는 90분 만에 그를 서울역에 부려 놓았다. 1일 생활권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물리적 메커니즘이든, 정신적 메커니즘이든 간에 편리하고 다양한 삶의 방안을 기피할 이유는 없다.

비록 서울에 발 못 붙이고 낙향한 변방인생이지만, 한때 디자인이라는, 생활미술학과를 졸업한 그로서는 미래지향적 형태 조작에 목숨을 걸었던 적도 있었다. 한겨울 쪽방의 살

가 있는 거야. 일단 완주씨의 고정관념을, 고착된 패턴을, 그런 자신을 깨부수고 나와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디자인에 골인할 수 있는 거야. 먼저 등 돌린 게 그녀였는지, 그 자신이었는지 모호하다. 그냥 그런 와중에서 서로의 등으로부터 멀어졌을 것이다.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그쪽 세계하고는 이미 문 닫아 건지 오래 됐다.

높고 아득한 그쪽, 왜 가는 지, 안숙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경미의 그림 전시장에 꼭 자신이 나타나야 할 이유 같은 건 없다. 그는 그 부분에서 생각을 잠시 멈춘다. 아주 잠깐 동안 앓은 눈꺼풀이 자잘하게 떨리고, 그의 감은 눈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기가 스미는 동안 그의 고개가 설레설레 흔들린다. 그냥 달려가는 거다. 부지런한 농사꾼으로 견디기 위해 저지르는 헛발질, 아주 작은 부랑, 나름대로의 생존방식 같은 건지도 모른다고 자신을 다독인다. 삶을 견디게 하고, 때없이 술렁이는 가슴을 억제하고, 평정에 이르도록 조율하는 그 낭만의 한 꼬투리마저 압수당한다면 살 가치를 잃을 지도 모른다.

4년 전, 안숙의 수채화 전시회에 올라 왔다. 전시회 초대장 곁봉에, 올라 올 거지? 안숙의 육필이었다. 이미 그때 그녀는 혼자의 몸으로 돌아와 있었다. 즐기차게 따라다니던 문화부 신문기자하고 결혼해서 1년을 고비로

동 정

수 상

▲全兢烈(토목공학45-48 유신 회장)=지난 10월 18일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 산업훈장 수훈.

▲柳熙春(상학49-55 한일이화 회장)=지난 10월 8일 보성교우회로부터 제17회 자랑스러운 보성인상 수상.

▲李信玉(건축52-56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명예 회장)=지난 10월 8일 세계여성 건축가협회 서울총회에서 술람주 회장으로 부터 공로상 수상.

▲方惠子(회화56-61 재불 서양화가)=지난 10월 16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육관 문화훈장 수훈.

▲金東虎(행정56-61 前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지난 11월 1일 일맥문화재단으로부터 제13회 일맥문화대상(문화예술상) 수상.

▲黃東奎(영문57-61 모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지난 10월 16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 문화훈장 수훈.

▲金次均(언어58-64 충남대 명예교수)=지난 10월 22일 재단법인 외솔회로부터 제32회 외솔상(문화부문) 수상.

▲夫大珍(건축59-63 진아건축도시 회장)=지난 10월 4일 제6회 건축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陳政一(화학60-64 고려대 석좌교수)=지난 9월 29일 중국 북경 대인민궁전에서 원자바오총리로부터 '중국 우의장' 수상.

▲崔完秀(사학61-65 간송미술관 연구실장)=지난 11월 1일 韋庵張志淵선생기념사업회로부터 제21회 韋庵張志淵賞(한국학부문) 수상.

▲柳岸津(교육61-65 모교 소비자 아동학부 명예 교수·시인)=지난 10월 26일 제2회 구상문학상 수상.

▲洪羅喜(응용미술63-67 前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지난 10월 16일 경기여고 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경기인상 수상.

▲尹美容(국악65-69 국악방송 이사장)=지난 10월 16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육관 문화훈장 수훈.

▲金載弘(국어교육66-70 경희대 교수)=지난 10월 16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관 문화

훈장 수훈.
▲任晟準(외교67-71 前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한국외대 석좌교수)=지난 10월 21일 헝가리 정부로부터 십자공로훈장 수훈.

▲崔元植(국문68-72 인하대 교수)=지난 10월 15일 연구서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로 제2회 임화문화예술상 수상.

▲金仁圭(정치69-73 KBS 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1월 1일 일맥문화재단으로부터 제13회 일맥문화대상(사회봉사상) 수상.

▲姜天錫(사회69-76 조선일보 주필·본보 논설위원)=지난 11월 1일 韋庵張志淵선생기념사업회로부터 제21회 韋庵張志淵賞(언론부문) 수상.

▲金晋洙(농경제70-77 CJ제일제당 사장)=지난 10월 6일 친환경 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池根億(식품공학75-79 모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지난 10월 1일 제4회 다산대상(실용과학부문) 수상.

▲金英蘭(법학75-79 前대법원 대법관·서강대 석좌교수)=지난 10월 16일 경기 여고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경기인상 수상.

▲高光一(전기공학80졸 고영테크놀로지 대표)=지난 10월 19일 '벤처코리아 2010' 행사에서 석탑 산업훈장 수훈.

▲尹興植(화학77-83 아미노로직스 중앙연구소장)=지난 10월 14일 대한화학회 총회에서 화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기술정보상 수상.

▲南閔佑(기계공학80-84 다산네트웍스 대표)=지난 10월 19일 '벤처코리아 2010' 행사에서 동탑 산업훈장 수훈.

▲朴鍾完(의학80-86 모교 약리학 교실 교수)=지난 11월 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제8회 화이자의학상(기초의학상) 수상.
▲申然琇(심리83-89 동아일보 산업부장)=지난 10월 19일 '벤처코리아 2010' 행사에서 벤처기업대상 특별공로상 수상.

▲安芝薰(식물84-88 고려대 교수)=지난 10월 8일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대회에서 제7회 마크로젠 신진과학자상 수상.

▲尹炯根(AIP 36기 대우엔지니어링 사장)=지난 10월 18일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 산업훈장 수훈.

▲洪俊基(AIP 39기 웅진코웨이 대표)=지난 10월 6일 친환경산

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경제신문 사장상 수상.

▲李承漢(SGS 11기 삼성테스코 회장)=지난 10월 6일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文薰淑(ALP 12기 유니버설문화재단 이사장)=지난 10월 16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화관 문화훈장 수훈.

인 사

▲李升煥(행정55-59 前특허청 차장·前주그리스 대사·송원국제특허법률 대표변리사)=최근 설립된 한국특허감정원 대표에 취임.

▲朴元勳(화학공학58-64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지난 10월 21일 아시아과학한림원 연합회(AASA) 회장에 선출.

▲金允培(농공학61-66 세한국제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지난 10월 6일 프랑스 파리에 열린 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禹鍾一(상학63-69 前동부CNI 감사·前동부메탈 사장)=지난 10

월 7일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한농 사장에 선임.

▲金鍾燮(사회사업66-70 스페코·삼익악기그룹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10월 1일 청소년 적십자 사업후원 회장에 위촉.

▲徐東喜(응용미술66-70 건국대 교수)=최근 재단법인 삼일문화 재단이 시상하는 제52회 3·1문화상 예술부문 심사위원에 위촉.

▲金星煥(경제72-76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지난 10월 8일 외교통상부장관에 임명.

▲金晟煥(법학72-76 前특허청 정보기획본부장·특허심판원 심판장)=지난 10월 3일 특허심판원장에 임명.

▲梁承穆(신문74-79 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지난 10월 16일 임기 1년의 한국언론학회 제37대 회장에 선출.

▲金鳳洙(AMP 53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지난 10월 11일 세계거래소연맹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아태지역 이사에 선임.

▲李東熙(AIP 30기 前포스코 사장)=지난 10월 1일 대우인터내셔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부회장에 선임.

▲조준래(AMPFRI 12기 비트플렉스 회장)=지난 10월 29~31일 광주 유스퀘어와 영상복합문화관에서 열린 제12회 한국청소년영상제 조직위원장에 취임.

행 사

▲鄭元植(교육48-54 유한재단 이사장·본회 고문)=지난 11월 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저서 '인간의 인지'와 회고록 '변혁의 시대에서' 출판기념회 개최.

▲姜泰成(조소49-54 이화여대 명예교수)=지난 10월 5일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제7회 이동훈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 개최.

▲金后蘭(가정교육53임 문학의 집·서울 이사장)=지난 10월 21일 '전쟁과 인간'을 주제로 2010년 서울문학인대회 개최.

▲金九植(국어교육55-59 모교 국문학과 명예교수)=지난 10월 13일 울산대 시청각교육관 다매체강당에서 '한국현대소설읽기'를 주제로 특별강연.

▲鄭卓永(회화56-60 前모교 동양화과 교수)=지난 9월 29일~10월 12일 서울 관훈동스페이스 이노에서 기획초대전 개최.

▲趙誠愛(응용미술64-68 임강관 화공방 대표)=지난 10월 6~10일 부산 벡스코 제3전시장에서 李貞林(회화 73-77) 동문과 함께 작품전시회 개최.

▲安炳燦(신대원71-75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1월 1일 서울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경술국치순국 1백주년을 맞아 祖父인 애국지사 安瀟 추모 및 韋堂遺稿 '선비 安瀟 日誌' 완역발간 기념 모임 개최.

▲金貳煥(신대원72-75 前한국광고주협회 상근 부회장·중앙대 객원교수)=지난 10월 22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어린이 광고국제제포럼에 토론자로 참석.

▲金星希(기악75-79 한국브람스 협회장·피아니스트)=지난 11월 8일 서울 부암동 부암아트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은(기악95-99)동문 등과 함께 조인트 리사이틀 개최.

▲朴京沃(기악77-81 한양대 교수·첼리스트)=오는 11월 18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파르넷 21' 제35회 정기연주회 개최.

▲李相起(서양사학81-87 아시아기자협회 창립 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0월 28일 연세대 알렌관에서 'G20 정상회의

와 아시아 언론의 시작' 주제의 포럼 개최. 또 29일 서울·부산간 KTX열차에서 오픈 포럼 열고,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타임캡슐 봉인식 개최.

▲林慶園(기악81-85 성신여대 교수·첼리스트)=지난 11월 9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루빈스타인 작품으로 첼로 독주회 개최.

▲李碩竣(기악90-95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호르니스트)=지난 11월 4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슈만, 바흐 등의 작품으로 호른 독주회 개최.

▲임명진(기악93-97 성남시립교향악단 수석·클라리네스트)=지난 11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모차르트 작

품으로 클라리넷 독주회 개최.

▲金奎(ACAD 39기 前공군방공포병사령관·국방대 초빙교수)=최근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장군의 리더십'(나루코판) 출간.

▲金泰完(ACAD 44기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회장)=지난 10월 10일 충북 청원군 법왕정에서 G20 정상회의 성공기원 및 국민 한마음 잇기운동 범불교도대회에서 결의문 채택.

▲申一汕(AMPFRI 14기 나노카보나 대표·AMPFRI동창회장)=지난 10월 27일~11월 1일 서울 해화역 전시관에서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탄소관낼 초상전 개최.

▲洪在希(GLP 20기 신세대문화예술교류단 이사)=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포트 에이피 힐에서 열린 보이스카우트 창립 1백주년 기념 내셔널 잼버리에 참석.

■ 참가 명부를 씁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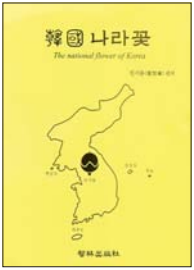
▲朱宰璜(법학42졸 前중앙선관위원장)=10월 11일 별세(92세)
▲金昌德(법학47졸 前중앙실업 이사)=10월 5일 별세(94세)
▲安霖(정치44-48 前성군관대 교수)=10월 17일 별세(89세)
▲孫寶基(사학46-47 前연세대 교수)=10월 31일 별세(88세)
▲曹祥絃(성악48-51 슈베르트협회장)=10월 29일 별세(86세)
▲李昌雨(법학54-58 前부산일보 전무)=10월 16일 별세(75세)
▲李輔植(임학57-62 前산림청장)=10월 22일 별세(73세)
▲黃寅性(행대원65졸 前국무총리)=10월 11일 별세(84세)
▲姜涼熙(해양77졸 前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10월 30일 별세(60세)
▲車泰勳(경영83-87 한국외대 교수)=10월 2일 별세(46세)
▲李勳東(AMP 2기 조선내화 명예회장)=10월 30일 별세(92세)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이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 韓國나라꽃
— 權智庸 편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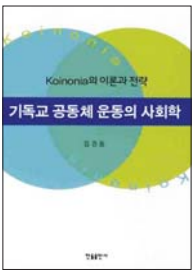


한 국 어 문 연구회 상임 이사, 전 국 한 자 교육추진 연합회 공동 대표 등을 지낸 權智庸(행정 48-52) 동문이 무궁화에 관한 글과 보도문, 특별 문헌 등을 한 권에 담았다.

제1부는 각계 인사들의 무궁화를 예찬한 글과 일제시대의 무궁화 수난 사례를 증언하는 글로 이뤄졌다.

제2부에는 權동문이 30년간 무궁화 선양 및 무상 보급활동을 하면서 집필한 글과 신문, 잡지 보도문을 수록했다.

■ 기독교 공동체 운동의
사회학 : Koinonia의
이론과 전략
— 金璟東 지음



모교 사회학과 金璟東(사 회 55-59) 명예교수가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 책은 기독교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기서 사회학과 기독교가 각기 할 일을 찾는다. 사회학은 왜 그런 현상이 전개됐는지를 분석해 현실 진단을 내리는 기능에서 교회를 도울 수 있다.

■ 선진국으로 가는 길
— 張水榮 지음

포스텍(포항공대) 총장을 지낸 張水榮(전기공학57-61) 동문의 교육칼럼집.

지난 12년 동안 張동문이 교육



의 현실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써왔던 글들을 하나로 모아 정리했다. 영남일보, 한국대학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던 교육칼럼들이 총 4부로 나뉘 수록돼 있다.

제1부는 이상적인 대학, 해외 대학제도, 대학의 자율성,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등을 다뤘으며, 제2부는 기초과학, 수학의 중요성 등을 담았다. 제3부에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언어생활을 주제로 집필한 칼럼을 소개했으며, 제4부에는 타임아웃, 에너지 절약 등 생활의 지혜를 수록했다. <학문출판·값22,000원>

■ 한국의 사회윤리 :
기업윤리·직업윤리·
사이버윤리
— 金璟東 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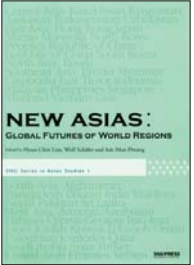


에서 분석한 책.

사회윤리의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로 기업경영윤리와 직업윤리 그리고 정보 사회에서 새로이 나타나는 사이버 공간의 윤리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윤리의 이론적 배경을 개관하고 기업경영윤리와 직업윤리 및 사이버윤리의 이론과 실재를 검토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장차 한국의 사회윤리를 어떤 방향으로 정립, 유도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다뤘다. <철학과현실사·값15,000원>

■ NEW ASIAs : Global
Futures Of World
Regions
— 林玄鎭 외 편저



모교 아시아연구소장인 사회학과 林玄鎭(사회67-71) 교수가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캠퍼스 Wolf Schäfer교수, 창원대 황석만 교수 등과 함께 새로운 아시아를 전망한 영문학술서적을 펴냈다.

이 책은 2004년 지구촌 각 지역의 미래를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의 현실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써왔던 글들을 하나로 모아 정리했다. 영남일보, 한국대학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던 교육칼럼들이 총 4부로 나뉘 수록돼 있다.

제1부는 이상적인 대학, 해외 대학제도, 대학의 자율성,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등을 다뤘으며, 제2부는 기초과학, 수학의 중요성 등을 담았다. 제3부에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언어생활을 주제로 집필한 칼럼을 소개했으며, 제4부에는 타임아웃, 에너지 절약 등 생활의 지혜를 수록했다. <학문출판·값22,000원>

■ 한국의 사회윤리 :
기업윤리·직업윤리·
사이버윤리
— 金璟東 외 지음

모교 사회학과 金璟東(사 회 55-59) 명예교수가 한국의 사회윤리 문제를 사회과학적인 관점

에서 분석한 책.

사회윤리의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로 기업경영윤리와 직업윤리 그리고 정보 사회에서 새로이 나타나는 사이버 공간의 윤리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윤리의 이론적 배경을 개관하고 기업경영윤리와 직업윤리 및 사이버윤리의 이론과 실재를 검토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장차 한국의 사회윤리를 어떤 방향으로 정립, 유도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다뤘다. <철학과현실사·값15,000원>

■ NEW ASIAs : Global
Futures Of World
Regions
— 林玄鎭 외 편저

모교 아시아연구소장인 사회학과 林玄鎭(사회67-71) 교수가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캠퍼스 Wolf Schäfer교수, 창원대 황석만 교수 등과 함께 새로운 아시아를 전망한 영문학술서적을 펴냈다.

이 책은 2004년 지구촌 각 지역의 미래를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공 연

■ 韓玉美 작곡발표회
— 11월 21일 예술의 전당

가톨릭대 韓玉美(작곡83-87) 교수가 11월 21일 오후 3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李 箱 탄생 1백주년 기념 작곡발표회를 갖는다.

‘사람은 다시 한 번 나를 맞이한다’를 주제로 신작 ‘어디서 왔느냐’, ‘레몬향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나요?’, ‘어디로 가나’ 등을 초연한다. <공연문의 : 부암아트 391-9631>

■ 오혜승 바이올린독주회
— 11월 21일 금호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오혜승(기악 95-99) 동문(사진)이 11월 2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갖는다.

예일대에서 석사학위, 텍사스대(오스틴캠퍼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오 동문은 이날 비발디, 바흐, 헨델, 비버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 金東鎭 클라리넷독주회
— 11월 27일 예술의 전당

경원대 교수를 역임한 클라리네스트 金東鎭(기악63-67) 동문(사진)이 11월 27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클라리넷 독주회를 연다.

서울시립교향악단 관악합주단 지휘자로 활동해온 金동문은 이날 베토벤, 헤르만, 피아졸라,

분석·예측하기 위해 시작한 국제적 학술프로젝트의 일부이다.

아시아가 통합된 하나의 아시아(Asia)가 아닌 여러 모습을 지닌 다양한 아시아(Asias)라는 점에 주목한 이 책의 논문들은 아시아가 하나의 동일한 권역(Bloc)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아시아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아시아 자본주의, 통치체제, 이민정책과 세계화에 대한 아시아의 반응을 종합했다. <서울대출판문화원·값50,000원>



템플턴 등의 작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 미시건주립대 동문음악회
— 11월 28일 세종문화회관



피아니스트 嚴義卿(기악81-85) 동문(사진上)과 김선아(기악95-99) 동문(사진下) 등이 11월 28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음악회를 연다.

미국 미시건주립대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와 함께 리스트, 슈트라우스, 생상스, 이종희, 드보르작 등의 작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 : 부암아트 391-9631>

■ 李賢珣 피아노독주회
— 12월 1일 세종문화회관

영남대 겸임교수인 피아니스트 李賢珣(기악78-82) 동문(사진)이 12월 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한다. 위스콘신대(메디슨캠퍼스) 음대를 졸업한 李동문은 이날 라벨의 Miroirs(거울), 슈만의 Carnaval(謝肉祭) 등으로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 부암아트 391-9631>

■ 李文暎 듀오리사이틀
— 12월 3일 장천아트홀

원주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인 바이올리니스트 李文暎(기악93-97) 동문이 첼리스트 이지영 씨와 함께 12월 3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장천아트홀에서 ‘同行’을 주제로 듀오 리사이틀을 개최한다.

이날 오네거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티나 등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 부암아트 391-9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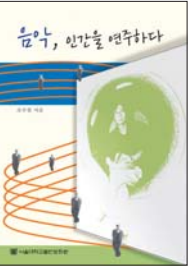
■ 張仁馨 피아노독주회
— 12월 4일 금호아트홀



모교 음대 박사과정의 피아니스트 張仁馨(기악02-06) 동문(사진)이 12월 4일 오후 8시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한다.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최우수로 졸업한 張동문은 이날 슈베르트, 리스트, 베토벤의 작품을 선사한다. <공연문의 : 금호아트홀 6303-7700>

■ 음악, 인간을 연주하다
— 曹洙哲 지음



가 음악과 인간을 성찰한 책. 4장으로 나뉘 제1장 ‘음악과 신

체’에서는 음악이 인간의 신체, 그 중에서도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제2장 ‘음악과 마음’에서는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와 맹자, 순자와 목자, 프로이트와 융 같은 동서양 성인과 심리학 대가의 음악론을 다뤘다. 제3장 ‘음악과 사회성’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음악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살펴본다. 제4장 ‘음악과 영혼’에서는 우리의 영혼에 음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소개했다. <서울대출판문화원·값13,000원>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2010년 9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10. 9. 14~10. 18)·일반(10. 9. 14~10. 18)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평생회비

〈이사〉

△고정식 공대73 △권순일 법대77
△구자관 공대73 △김동조 음대73
△김기원 AIP38 △김소함 음대77
△김성이 문리65 △김영우 의대84
△김영배 문리62 △김종숙 간호79
△김용기 상대56 △김창호 공대72
△김종표 법대87 △남기봉 자연73
△나덕주 공대67 △문홍길 공대76
△남윤영 GLP13 △박상규 의대74
△박상근 의대74 △박상섭 치대88
△박성주 문리70 △박영소 문리66
△박종수 AMP63 △박행모 大院84
△박현수 AMP36 △박흥균 공대71
△서경석 공대56 △설양조 치대89
△신명훈 법대83 △안윤주 음대82
△염정덕 공대81 △오준수 자연72
△유응중 ACAD67 △윤문숙 음대80
△윤중현 법대65 △이영석 SPAR4
△이윤희 치대79 △이인정 AMP35
△이해동 AIC20 △이현수 농대60
△이현숙 음대68 △이형규 약대74
△이효건 사대66 △장 학 의대85
△정수안 음대90 △정철기 사대59
△조상순 공대72 △조완석 大院80
△지금수 생활56 △지종민 GLP17
△천한우 경영79 △최규호 공대89
△최병선 사대54 △최승재 사대90
△최영자 사대65 △최현림 의대73
△최현자 농대80 △하해근 치대85
△한건표 사회76 △홍병래 AMP38
△황호영 공대58

〈일반〉

△고승철 경영75

△구태균 자연04 △권태웅 상대58
△권혁복 미대82 △김 용 HPM2
△김두철 공대66 △김민규 의대06
△김성열 ANMP5 △김성운 미대82
△김영민 ACAD58 △김영식 문리65
△김용일 공대82 △김장민 AMP69
△김주혜 생활87 △김학준 SPAR16
△김현기 사회85 △남연우 경영83
△김현기 사회85 △문기찬 의대67
△명인종 농대73 △박보무 법대57
△문성철 치대86 △박윤수 공대01
△박용호 음대83 △박지원 법대99
△박준우 문리65 △박종현 문리60
△백문규 법대68 △봉종현 문리60
△손광춘 AFP1 △신중억 농대67
△신혜승 음대77 △안건훈 大院74
△인무영 SGS23 △안상원 미대82
△양승철 사대90 △오세웅 치대90
△유상욱 SPAR16 △유정숙 사대64
△이경운 AMP67 △이득춘 AIP40
△이상국 농대74 △이상욱 공대68
△이선형 치대58 △이영주 경영99
△이윤희 의대86 △이일철 사대48
△이정숙 미대65 △이종백 상대69
△이종숙 음대69 △이하일 AMP66
△임기주 SGS17 △임석혁 AMP69
△임승운 사회78 △임용택 공대74
△임형진 사대51 △정 진 사대60
△정영균 수의66 △정찬균 자연83
△정태진 상대49 △정홍주 사회79
△조규상 ALP10 △진성진 법대78
△차희원 사회82 △최건호 법대91
△최영미 약대83 △최윤경 자연82
△최현민 경영78 △한기남 AMP69
△홍승기 인문75 △홍재희 GLP20
△황범태 수의84 △황세연 공대03
△황수현 생활04 △황영자 농대59
△황찬호 의대89

이 사

◆인문대 △강창일71 △김동철78
△문상원72 △손예철69 △이동근76
△임미화83 △허영재77
◆사회대 △김종성81 △김준동80
△박성희75 △박중욱81 △신철식73
△유두선83 △유성엽80 △이종현73
△이주형72 △임 철75 △임유철84
△전홍찬79 △조성원88 △차명진79
△최영선77 △한병승85 △홍석규75
◆자연대 △금종해76 △김 윤68
△김양진83 △남궁욱72 △민영철74
△박윤경83 △이상엽75 △이상욱83
△이철의75 △이한형73 △장대연74
△장성기72 △정철희75
◆간호대 △김명숙61 △김신정73
△박상연68
◆경영대 △김성균82 △김성민81
△김확식76 △박종완71 △차순관72
△최재후74 △황수영80
◆공대 △강희태58 △고갑석70
△고시영71 △권상철74 △권오선79
△김계환82 △김경배68 △김경웅83
△김덕재54 △김도심52 △김동성73
△김명수73 △김문경61 △김병길64
△김상훈80 △김신원64 △김연철67
△김영식66 △김웅범70 △김은영56
△김중의59 △김진영68 △김진의64
△김학제65 △김호용72 △나완수80
△남상률70 △문석형50 △민경택71
△박덕철57 △박병국82 △박승훈72
△박영길78 △박영복63 △박우규70
△박인균75 △박재종77 △박종택48
△박준장47 △박창호65 △박태권55
△박화규77 △배재흠70 △변영삼77

△서두석71 △서문호68 △손경업65
△손석광75 △손종권71 △송준영67
△신동식51 △신동주79 △신윤승74
△신희승71 △심이택57 △양 갑68
△양현승58 △오창석69 △오희석51
△옥영석78 △우상룡72 △우진태79
△원종환52 △유승준63 △윤극노62
△윤양준78 △이건우74 △이경환83
△이능규69 △이동춘53 △이문화65
△이병하69 △이상엽82 △이석형70
△이선계65 △이성팔72 △이승기70
△이여종68 △이영한76 △이원표72
△이윤표77 △이재욱61 △이재형76
△이재홍72 △이정만70 △이종훈53
△이창호55 △이한배60 △이홍원66
△이효일62 △이희승60 △임 용79
△임민수66 △장기욱53 △장진양67
△전석원83 △전웅진64 △정성환77
△정옥희52 △정재영70 △조명호78
△조응수74 △조장현64 △최병홍78
△최상오63 △최상현77 △최수현65
△최순철39 △하태균86 △한도석78
△한상대70 △홍성표67 △황 철71
△황일인59
◆농대 △곽영철59 △구현수67
△권오진52 △김상호56 △김성린77
△김시한80 △김양재78 △김완기65
△김용상83 △김일봉68 △김진오69
△김태수66 △김현구50 △민경택88
△박기수71 △박동선58 △박순직63
△서원호74 △손환규64 △신두철70
△양재승70 △왕진무60 △유문일66
△윤동원79 △이건일60 △이미경74
△이병목64 △이병일57 △이삼취66
△이영권80 △이장섭52 △이정재69
△이학재83 △이희석57 △이희수80
△임용택54 △임종완70 △정을규61

△최진규72 △한갑준52 △홍석현77
△홍형홍62
◆문리대 △강승렬62 △권오득63
△김문창61 △김선희68 △김영주70
△김용범60 △김정환61 △김춘석69
△김하석63 △남광성61 △남영우68
△문현석66 △박 실58 △박기덕70
△박동수46 △박범진60 △박영배65
△박의송60 △박정무59 △박하진67
△박혜란65 △박희준65 △방효선51
△배규한70 △북진태66 △성민선64
△손재국65 △양이훈65 △염경일64
△오완영59 △이병기66 △이성덕56
△이용태63 △이원홍52 △이윤배67
△이정길59 △이정남51 △이정수59
△이제훈58 △이형구59 △임병석54
△임정빈66 △정구훈65 △정명수64
△정소성64 △지경홍60 △한영우57
△홍영남60 △홍종호62
◆미대 △김영대67 △민철홍54
△박재호59 △안종문60 △이명기76
△최명애70 △한근석81
◆법대 △강대석67 △경우근67
△구충서71 △김갑현50 △김경태63
△김권택63 △김덕영60 △김두희58
△김성길60 △김승욱60 △김승진57
△김신태57 △김연근85 △김운용81
△김응열59 △김정삼72 △김종일52
△김주영83 △김진우52 △김진환67
△김창균57 △김태조54 △김형성79
△김호응72 △나경원82 △노태호66
△노태호66 △문성우75 △민수광60
△박 만70 △박동섭60 △박만호57
△박상기56 △박상천57 △박성원81
△박인제71 △박홍우72 △박휴상65
△박희태57 △배용재74 △서승일67
△서정석65 △성쾌문60 △송언종56

△신규태⁵⁶ △신영수⁷⁰ △신호철⁶¹
△안성희⁶⁶ △양승규⁵⁶ △양현주⁸¹
△오연균⁷⁶ △우의형⁶⁶ △유남석⁷⁶
△윤동윤⁵⁷ △윤보목⁶⁶ △윤영철⁵⁶
△윤원만⁷⁹ △윤재열⁵⁰ △이경우⁷⁶
△이기웅⁵⁰ △이동명⁷⁵ △이수영⁷⁴
△이인상⁶⁰ △이재창⁵⁶ △이재철⁷⁰
△이종삼⁵⁴ △이창복⁷⁴ △이충범⁷⁸
△이태창⁶¹ △이학성⁷⁷ △임종훈⁷³
△임태수⁵⁶ △장윤기⁶⁹ △장준철⁶⁷
△전응진⁴⁹ △정경영⁷⁹ △정광우⁶¹
△정구영⁵⁷ △정대권⁷⁵ △정병섭⁵⁶
△정세용⁷⁴ △정연조⁵⁵ △정용인⁶⁰
△정호영⁶⁶ △조용무⁶⁰ △조중환⁶⁵
△조현우⁶⁸ △최철국⁷² △한경국⁵⁷
△한부환⁶⁶ △한승희⁵⁵ △한병무⁵²
△현재현⁶⁷ △황영하⁵⁸ △황의만⁷⁰
◆사대 △강경돈⁷⁰ △강영삼⁵⁹
△고영기⁷² △고영신⁷³ △곽형기⁷¹
△구영주⁷² △기진오⁶⁷ △김남조⁴⁷
△김봉균⁶⁰ △김서령⁷⁸ △김영애⁶⁴
△김용균⁶⁵ △김용진⁷⁵ △김재호⁵³
△김종원⁶¹ △김진영⁶⁵ △김전수⁶³
△김학전⁵⁹ △나병삼⁶⁴ △노갑기⁶⁶
△노정학⁷³ △박봉상⁵⁹ △박재공⁶²
△박지모⁷⁷ △박찬구⁵⁶ △박태섭⁷⁶
△박효석⁷⁰ △박흥일⁶⁰ △서정선⁶⁰
△손영목⁶⁰ △송장섭⁶⁹ △신영준⁸¹
△신용래⁵⁶ △엄영주⁶⁶ △유영채⁷⁰
△윤용섭⁶¹ △윤재봉⁵⁶ △이규석⁶⁶
△이민자⁵⁹ △이법국⁵⁵ △이상권⁸⁰
△이선준⁴⁸ △이원강⁵⁷ △이재인⁸²
△이재혁⁶³ △이준선⁶⁹ △이찬근⁷⁴
△인병식⁶¹ △정상권⁷² △정주섭⁵²
△조규권⁷⁶ △최동환⁷² △최병순⁶⁹
△최성재⁸⁵ △최영상⁵⁶ △최희유⁶⁸
△표진이⁶⁶ △함오연⁶⁷ △황성욱⁶⁸
◆상대 △김국주⁶⁴ △김녀명⁶³
△김덕기⁵² △김덕명⁶⁰ △김만경⁵³
△김명준⁶² △김상남⁶⁶ △김흥배⁶⁶
△남상덕⁶⁹ △박 간⁶⁸ △박순일⁶⁹
△박태하⁵⁸ △배경일⁶⁹ △배정운⁵⁹
△서정도⁶⁶ △선종승⁷¹ △손상모⁵³
△송필호⁶⁸ △신세길⁵⁷ △신승철⁵⁹
△유석홍⁶¹ △윤우진⁶¹ △이광수⁵⁰
△이구수⁵⁷ △이봉서⁵⁵ △이승웅⁶⁰
△이영선⁶⁶ △이용성⁵⁶ △이정재⁶⁵

△이찬민⁷⁰ △이철희⁵⁷ △이태환⁵⁸
△전문준⁶⁴ △정재택⁵⁸ △정태웅⁶⁷
△정형배⁶⁴ △제만수⁶¹ △조문규⁵⁷
△조상호⁶⁹ △조영삼⁷¹ △조원구⁶⁴
△조창제⁵⁷ △차태균⁷¹ △최 광⁶⁶
△최명해⁶⁸ △최영환⁶⁰ △최준환⁶⁶
△표계영⁵⁸ △최명규⁴⁶
◆생활대 △민미란⁸¹ △박성희⁷³
△정영진⁶⁸ △조성교⁶⁹
◆수의대 △강경선⁶⁰ △김계방⁶¹
△김윤수⁷⁴ △나기식⁵⁴ △박성권⁷⁴
△박종영⁶¹ △배상호⁶⁴ △오효성⁷⁷
△이 준⁶² △이상만⁴⁸ △이원철⁷⁴
△조휴익⁵⁹ △지차호⁷⁰
◆약대 △김순화⁷³ △김장호⁶⁵
△박만기⁵⁹ △박승규⁵⁹ △박종훈⁴⁷
△배영일⁶⁰ △신현하⁵⁶ △원희목⁷³
△유태숙⁷² △이민하⁵⁵ △장석윤⁷⁹
△장학순⁴⁷ △조용현⁷⁴ △최명식⁶⁴
△최진곤⁷⁷ △한규흥⁶⁴
◆음대 △김광희⁶⁸ △김재미⁸⁴
△민희경⁷⁷ △심선화⁷² △이선이⁸⁴
△이유희⁶⁸ △이준복⁶⁸ △최성희⁸⁰
◆의대 △강세윤⁵⁹ △고원순⁶⁸
△고행일⁶⁴ △김귀윤⁶⁶ △김명석⁶²
△김병국⁶⁴ △김종환⁵⁰ △김현우⁶⁴
△남상윤⁷² △노충희⁷⁰ △동영송⁴⁹
△맹국영⁶⁸ △박경환⁷¹ △박소배⁷²
△박호진⁷² △박효일⁵⁸ △손기섭⁵¹
△송희승⁵³ △신 실⁶⁰ △신기철⁷⁵
△양승렬⁵¹ △오승환⁵⁶ △우재홍⁶¹
△유경삼⁶⁴ △유세화⁶⁵ △이동철⁷⁷
△이병훈⁶⁰ △이재경⁸⁴ △전형식⁸¹
△정영덕⁷⁰ △정을삼⁶⁰ △정태완⁶⁴
△조강희⁵⁹ △조영희⁵⁶ △조환구⁴⁴
△차인식⁷² △최 윤⁷⁶ △최복식⁸⁴
△최영길⁵³ △최진수⁶⁴ △추광철⁶⁰
△하일수⁷⁶ △한달선⁵⁸ △홍성환⁷⁶
△홍순우⁸⁵ △황대용⁸⁰
◆치대 △곽현희⁶⁸ △구창서⁵⁸
△김 현⁶⁷ △김종철⁷¹ △김종훈⁷³
△김홍석⁵⁹ △문복강⁶² △박기성⁵⁵
△박영길⁶⁴ △박찬우⁶⁵ △박형기⁵⁵
△백성기⁷¹ △백순지⁶³ △서영수⁶⁷
△양수정⁸³ △양일수⁷³ △이봉재⁵⁶
△이용오⁵⁶ △이종혁⁷⁴ △이진규⁷⁸
△임성수⁶⁰ △장상현⁵⁹ △주미희⁸²

△진윤수⁸⁰ △최순철⁷³ △홍경택⁶⁴
◆대학원 △구경모⁷⁷ △김석웅⁸¹
△남선현⁷⁷ △문두길⁸⁷ △문형근⁷⁹
△배명진⁸³ △양일석⁷³ △임병빈⁸²
△최원희⁸¹
◆경대원 △김정태⁶⁸ △김호봉⁶⁸
△유장규⁶⁷ △이상락⁶⁵ △장봉희⁹⁰
△조현국⁷³ △한기룡⁷¹
◆교대원 △장석민⁷⁰
◆보대원 △박원길⁶⁵ △박일영⁷⁹
△어수미⁸³ △윤용길⁷⁰ △이형구⁹¹
△조경중⁶⁸
◆사대원 △이원형⁶⁴
◆신대원 △유일상⁷²
◆행대원 △강윤원⁷⁷ △권기성⁷⁷
△김익영⁶⁸ △김인동⁶⁵ △남병홍⁷⁸
△남상우⁷³ △노일숙⁷⁹ △유금복⁸⁰
△정여철⁷⁴ △최규학⁶³
◆현대원 △권 완⁷⁶ △김연명⁸⁵
△임동환⁸⁵
◆AMP △권오영⁶⁴ △김기웅²⁸
△박수웅³⁹ △박인상²⁸ △양성욱¹
△유시수²⁵ △육신학⁵⁷ △이경태³¹
△이규철⁴⁴ △이용표³⁶ △장건택²¹
△정석현⁴⁴ △정연근⁵⁸ △조형수⁵⁸
△차문현⁶⁷ △최영보⁵⁵ △최호경²⁸
△히정길⁶
◆AIP △김동하²⁹ △김완희³⁴
△김원배¹⁹ △여운창³² △우영식²⁸
△이상희¹⁵ △임지현³⁰ △정두영³²
△조성환²¹
◆ACAD △권영호⁶⁰ △김광철⁴⁷
△김기성⁵² △김우연¹⁴ △김종식⁶⁰
△박 현⁵⁵ △박성득²⁰ △이관범²⁰
△이승재⁵³ △이왕열³³ △이재복²¹
△이종간⁵⁵ △이진영⁵⁶ △전종식⁷
△조주태¹⁴ △조홍규²⁶ △진강현²⁰
◆ABP △이 명⁸ △이충원¹⁷
△이관철³ △조도전²⁵
◆SGS △김승규⁷ △노영일¹¹
△이래원⁶ △최정희²² △황용연²
◆APC △김두완⁵ △김복승³
△김종전⁷ △서정원⁹
◆HPM △류희근⁴ △안호원⁶
△오국진⁵ △윤귀남⁵ △이철희⁴
△장찬기⁸
◆AMPP △심부택⁵ △이경재⁶

◆AIC △김영배² △박종렬³
△서희석¹⁶ △이일로¹
◆AFB △김규태¹ △박흥식⁷
△정호민⁷
◆AMPFRI △윤광선²³
◆ACPMF △이영수³
◆FIP △안성훈¹ △양태운⁴
△이기준² △최승래⁶
◆GLP △노윤호¹² △손영수³
△안재화¹⁰ △윤석호⁷ △이흥순¹²
◆ALP △양준호¹¹
◆SPARC △강정용¹¹ △김윤장¹¹
△민병찬¹⁴ △박성환⁸ △심재성¹²
△유승만³ △이승련¹⁴ △정낙균¹⁵
◆ASP △김성보¹¹ △박창호¹
△장기원⁵

일 반

◆인문대 △김민호⁰⁰ △김영민⁹⁶
△김영홍⁷⁴ △박명식⁷⁷ △박춘영⁸²
△백창혁⁸¹ △심윤남⁸² △이언주⁹¹
△정혜경⁸³ △조용일⁷⁷ △조현삼⁰⁰
△채민경⁰⁰ △허 선⁰⁵ △허기원⁹⁸
△허유진⁰¹ △황진상⁹⁸
◆사회대 △고은아⁸⁵ △김보민⁹⁶
△김서유⁸² △김연광⁸⁰ △김정환⁹⁰
△김형일⁸³ △박병욱⁹⁷ △박정언⁰⁵
△손영수⁸⁷ △송석준⁸³ △송호상⁷⁴
△신병호⁷³ △안상환⁷⁷ △은기수⁸¹
△이동환⁸⁴ △이재덕⁷³ △이종교⁸⁶
△이찬복⁹⁸ △이창구⁷³ △이창엽⁸⁶
△이한규⁹² △장성호⁸⁶ △장철호⁸³
△전상현⁹¹ △전주현⁹⁰ △정우진⁹⁵
△정우흔⁸⁴ △정진호⁰³ △최영환⁸⁴
△최유빈⁰⁵ △최형근⁷⁵
◆자연대 △구형모⁸⁸ △권창영⁸⁸
△김관식⁸⁴ △김욱래⁹⁴ △김재우⁶⁹
△노경진⁰⁶ △노형상⁰⁴ △박대열⁶⁸
△박영준⁹² △서재현⁰¹ △이미선⁰⁸
△장경우⁷⁸ △장원석⁹⁶ △전동오⁸⁴
△정민선⁰⁴ △정승원⁹⁸ △조성일⁹²
△조영길⁷⁴ △조유희⁸⁸ △최승우⁷⁴
△최영준⁸⁵
◆간호대 △김선영⁷⁶ △박용경⁸⁵
△박현자⁶³ △신선목⁸³ △이영선⁷⁶
△임정숙⁸⁴ △채영순⁷⁰

◆경영대 △김남식⁸⁴ △김동석⁶⁹
△김재환⁷⁹ △김종훈⁸⁶ △김준철⁸³
△류승철⁸⁹ △모과균⁸⁴ △박상건⁸⁵
△배재현⁸⁸ △송준관⁹⁷ △신석영⁹⁵
△오주성⁸⁵ △최신석⁹⁸ △최원일⁸⁹
△최진원⁸² △홍득관⁹⁵ △홍용천⁸⁷
△황동철⁷⁵
◆공대 △강은구⁹⁷ △공석봉⁵¹
△곽병근⁶¹ △곽희로⁶¹ △구본익⁷⁸
△구본현⁷³ △구자호⁰⁰ △권경준⁹⁵
△권숙문⁵² △권오동⁶⁹ △권학중⁸⁸
△김강석⁰⁶ △김규은⁴⁸ △김기준⁸⁹
△김도원⁹² △김동규⁵⁸ △김방식⁴⁹
△김상원⁹⁴ △김생빈⁵⁴ △김성희⁸⁰
△김수환⁶⁹ △김언기⁰⁵ △김유희⁵⁷
△김주찬⁷⁵ △김주호⁵² △김진욱⁹⁹
△김충은⁹⁹ △김형주⁰⁴ △니형주⁷³
△남지연⁰² △류세열⁸⁶ △문 광⁷⁰
△문석준⁰⁵ △박명준⁵³ △박상서⁸³
△박상혁⁵¹ △박수남⁶¹ △박영규⁵⁸
△박용택⁶³ △박용희⁰² △박재복⁵⁸
△박재서⁶⁵ △박종호⁷⁵ △방현규⁶⁸
△백용현⁴⁸ △변동명⁵⁸ △변영화⁵⁹
△변정근⁵² △서동식⁸¹ △서병우⁴⁸
△서영석⁸⁴ △서의석⁴⁹ △서정욱⁵³
△송미화⁰² △송철상⁶¹ △송관상⁴⁹
△송희국⁵⁵ △신승철⁵⁴ △신현식⁵⁰
△안정기⁰³ △안정욱⁰² △안호열⁴⁹
△양달수⁷⁹ △양우현⁷⁸ △염규섭⁵⁶
△원경식⁷⁷ △유승규⁷⁶ △유종오⁹⁴
△윤성영⁰⁴ △이경하⁶⁶ △이경환⁶³
△이경훈⁶¹ △이기백⁴⁷ △이동규⁰⁸
△이동선⁶¹ △이동훈⁹⁹ △이본수⁶⁴
△이성훈⁸⁵ △이세도⁷³ △이수목⁷⁶
△이승우⁰⁵ △이시우⁸⁵ △이영우⁵⁸
△이완상⁵² △이용석⁶⁷ △이용재⁵⁵
△이원복⁵⁰ △이유진⁶³ △이종수⁶⁵
△이종수⁸² △이창석⁹² △이창섭⁷⁰
△이치웅⁵⁷ △이현진⁰⁶ △장봉진⁵³
△장재호⁹⁶ △장지현⁰⁶ △전상수⁷²
△전유정⁰⁸ △전춘석⁷⁷ △정상구⁷³
△정용근⁸⁵ △정재현⁰² △정재호⁸⁸
△조득호⁶⁶ △조선용⁴⁹ △주경재⁵³
△최석주⁵¹ △최정근⁶⁵ △최종식⁸²
△최하식⁴⁶ △최희정⁶¹ △하상모⁹⁸
△한광흠⁸¹ △한대수⁷⁶ △한만유⁸¹
△한충수⁹⁸ △현봉섭⁴⁹ △홍종우⁵³

△홍현성72 △황정정59
◆농대 △강인석81 △공재환68
△구자훈02 △권원중56 △김규식68
△김규식72 △김선태81 △김승로01
△김연표51 △김재우69 △김재윤64
△김정특76 △김종성55 △김준호86
△김태규61 △김한태83 △명을재83
△문서상91 △박석호02 △박순흥85
△박원규89 △박정근63 △박정덕55
△박정윤55 △박진환48 △박천운91
△백영빈58 △서정연82 △송환창46
△신민식57 △신민종79 △양종성57
△엄태영53 △연장식84 △유병두73
△윤여성76 △윤창영76 △이 흥61
△이규형50 △이대직48 △이상욱56
△이석기63 △이우종81 △이재형66
△임승룡55 △장우삼63 △전현기64
△조규환63 △조선후54 △조재구83
△최선태59 △최용현80 △최진협54
△한민수05 △함태홍70 △홍철선58
△황재문69
◆문리대 △강신표55 △강영원70
△고인석56 △구본룡69 △구준옥58
△김기근69 △김남진59 △김동준65
△김만옥59 △김명환57 △김보영58
△김상욱68 △김성배57 △김용달57
△김인철60 △김주만72 △김태동62
△남대극63 △박중규69 △변재동56
△서병현53 △송병찬59 △신준근51
△안원태52 △양승영57 △우종택54
△원인기66 △유준재61 △유희형60
△윤홍로60 △이대일61 △이상근55
△이우석53 △이진택47 △이평우48
△정 탁59 △정의성57 △정춘영50
△조원홍71 △조환영68 △최경수69
△최재원65 △최홍근70 △표재명54
◆미대 △김상진00 △김지현05
△김학두51 △박석환53 △손원잠65
△우상호89 △정선화56 △최숙경59
◆법대 △강군우67 △강금실75
△강명식61 △강상진87 △고건호78
△고영한74 △곽창욱58 △구남수81
△김광주62 △김광훈79 △김남수64
△김대영71 △김세돈72 △김소연01
△김소연01 △김양섭90 △김영기66
△김용덕76 △김용환52 △김원철66
△김율섭56 △김재수59 △김종률81

△김종욱84 △김주원82 △김준영99
△김학수65 △김현영63 △김환식67
△박종순54 △박한채66 △박형남78
△배성범80 △서동희80 △송재양77
△신 신55 △신완수54 △안기영36
△안영수84 △어용선75 △오형석04
△오형환65 △오홍주70 △우영화62
△유장배72 △유해돈55 △은현호87
△이근윤76 △이명순85 △이미희00
△이병무57 △이정민88 △이준규72
△이지은96 △이채주53 △이학무55
△이희정94 △임승언56 △임준호77
△전창영74 △정덕모75 △조경래51
△조남현54 △조병직46 △조성기68
△조용원98 △조재건82 △조주현95
△조현수78 △지원훈61 △채승우88
△최석정61 △최영홍72 △한영광63
△함석재57 △홍성계60 △황인정80
△황철규83 △황활웅67
◆사대 △강길선57 △고웅섭54
△구나영03 △구수연87 △권오현71
△권정순59 △김윤상99 △김기련02
△김미정83 △김성곤49 △김성태54
△김수신60 △김수자68 △김순동56
△김용선67 △김우탁57 △김재혁50
△김재홍66 △김효정05 △민영업55
△박광국82 △박규완71 △박문수74
△박상근52 △박영배54 △박영자46
△박종대52 △박희문56 △서수현51
△서아영05 △송복주53 △신동진03
△신상인03 △오만원64 △유성수74
△유승연73 △이병순67 △이병주54
△이상경65 △이상규79 △이상철59
△이성진53 △이승우61 △이시훈57
△이윤상69 △이인희61 △이재근86
△이제용60 △이종철75 △이주혜89
△이창국60 △임 혁86 △장완배61
△장혜정01 △정복래54 △정복임60
△정봉채58 △정수만71 △정탁영85
△조도근57 △진명희78 △최진복75
△홍운표54
◆상대 △권만식65 △권태명58
△권혁태49 △김규현52 △김동휘48
△김두산57 △김상렬64 △김용민70
△김윤환67 △김이규50 △박명배64
△박인석48 △박종한49 △박종후54
△변원옥49 △성락후63 △손성철50

△신영일61 △양태진67 △오상봉70
△윤록현59 △이기용56 △이기주46
△이기철55 △이상호57 △이영세44
△이영호46 △이종명70 △이호철57
△장태익66 △전장원56 △정기완52
△정하용65 △최재만62 △최충호52
△최철현53 △한일상61
◆생활대 △김양희05 △김지연88
△류국영84 △박주희85 △배수향90
△오명숙70 △이미자81 △이예영93
△이정호98 △조정자61
◆수의대 △강상욱90 △김영무60
△방효범55 △서세일76 △서정기78
△이인섭71 △이재진59 △이학범06
△임춘기77 △정정현59 △조충호49
◆약대 △강기훈64 △강희경84
△김상범08 △김숙경06 △김종윤53
△박기숙86 △박문식57 △박성원93
△박운주84 △박천형06 △성태현70
△소병규05 △양영자51 △우제안57
△이선구90 △이진규79 △이형연77
△이훈자56 △정연심54 △최기철53
△한만봉81 △한병훈52 △한지연08
△황환상53
◆음대 △김기홍80 △김나아91
△김수연94 △박수전71 △서은령80
△송복자84 △이강은02 △이신희70
△이준성81 △장수영03 △장해리82
△정혜경00 △최영택74 △홍부미자60
△황수아98
◆의대 △곽계혁96 △김민석84
△김석의06 △김선민00 △김수경81
△김용식71 △김창범70 △김형규55
△김혜림06 △백성현56 △변종훈69
△설보람06 △송만준57 △심재식67
△심태섭56 △오석환45 △유종한96
△이상준60 △이원기56 △이정하02
△이주혁74 △이지혁95 △이철현67
△이희발59 △임경환01 △장학진64
△장호조61 △정재욱02 △최완주73
△최진숙78 △황성주77
◆치대 △강민선67 △김광주67
△김종배58 △김현진56 △나병선69
△백정화86 △서성구74 △성영환59
△안병관52 △안성모68 △안순찬83
△오만민60 △유병현07 △이공림70
△이규송58 △이상명69 △이상신56

△이장훈57 △정형태74 △조영호65
△주관철59 △최남섭73 △최승은63
△한영복58 △황성립86
◆대학원 △기순일94 △김명철81
△김용구80 △민경부84 △박용희62
△변종영71 △손상익85 △송윤경96
△이용범82 △정병희52 △조석준57
△최양석04
◆경대원 △박영희90 △유민철71
△이범신69
◆MBA △나상준09
◆교대원 △김영화74 △김충기64
◆보대원 △방옥근85 △배윤영07
△신기준64 △이경연71 △이진경71
△정두채80 △조순섭99
◆신대원 △김해성71 △서강화74
◆치대원 △고재일06 △권순모06
◆행대원 △김용국74 △김재윤83
△김정중94 △박완선77 △송하진81
△이경훈76 △이기섭77 △이석암78
△이종련68 △임세환71 △임종섭77
△장승태61 △허성두71
◆현대원 △박유정90 △신언교87
△이정택02 △전상훈83
◆AMP △곽덕근54 △금한태68
△김기석64 △김선제27 △김영재36
△김영훈49 △김용석60 △김종대59
△노재근42 △박병희61 △박찬엽40
△박홍래10 △배신호34 △성백진36
△손병준68 △신명철8 △신사현67
△신영주42 △심재섭68 △우상우18
△우영태40 △유종석57 △유진석32
△유흥수68 △이성길34 △이재민63
△이찬국46 △이하우69 △이현섭22
△장명웅40 △전용우65 △전후근68
△정덕모66 △정하덕23 △최기의68
△최상득17 △한상범68 △허 송50
△허일회68 △홍경선52 △홍승표68
◆AIP △곽상욱30 △김상진31
△김승길10 △김재욱42 △김정원18
△김종필40 △김지년38 △김해선26
△남귀현3 △박영욱15 △박임숙42
△박종원27 △신길웅10 △신용기9
△원석동19 △이강원33 △이은택6
△이종택33 △이천우13 △이태화16
△정영희42 △최익선25 △한상규21
◆ACAD △강연욱68 △김영광10

△박선만25 △박용암43 △박해성69
△서정만18 △이관영2 △이교용40
△임종국69 △조부영12 △최상철36
△최성룡68 △최수근51
◆ABP △신강수32 △안재성28
△이상래24 △이재구19 △정환수15
△조남준35 △조용호34
◆SGS △김용환16 △윤진환24
△황정식2
◆CHCN △예숙은11 △조순목10
◆APC △조갑환9
◆HPM △김남수14 △김종대16
△김주필4 △안병기23 △엄금량14
△이영태14 △조용선12
◆AMPP △방석관1
◆AIC △공병석28 △김동구13
△신우근4 △오용운9 △이상용28
△조익현22 △주승철28 △허 인25
◆AFB △강성열9 △김효영9
△문정욱9 △이용환7
◆AMPFRI △김상진6 △박수찬25
△유재만2 △이우규26 △임한택6
△조기조4 △조봉기1
◆ACPMP △김태용2 △남관우5
△류근욱6
◆FIP △고영수2 △신현민1
△황국현4
◆GLP △김성오21 △김찬근21
△대철인홍16 △신현운21 △안숙이21
△양승인21 △이성리9 △이재환21
△이종신20 △임종호11 △최병오21
◆ALP △김홍주4 △이영남11
△임대진5
◆SPARC △오준서4
◆AFP △김준한4
◆ASP △손경석18 △송희상7
△유배근6 △이재원13 △이한응18
△장덕생18

9 월 계 : 28,245,000원
평생회비 : 47,300,000원
입 회 비 : 160,000원
총 계 : 1,043,890,650원